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4·3사건과 주민의 동굴 피신생활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이그나즈 아니타

2016년 8월

제주4·3사건과 주민의 동굴 피신생활

지도교수 김 동 전

이그나즈 아니타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8월

이그나즈 아니타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6년 8월

A Study on the Residents' Life in Cave Refuges
during the Jeju 4·3 Incident

Anita Ignacz

(Supervised by Professor Dong-Jun,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Korean Studies

2016.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supervised.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Postgraduate Program in
Koreanolog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Abstract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선행연구	3
3. 연구의 대상과 방법	5
II. 제주4·3사건의 배경과 전개과정	8
1. 사건의 배경	8
2. 3·1절 시위사건과 4·3	10
3. 초토화작전과 그 후의 상황	14
III. 제주4·3사건 은신처 동굴 실태와 피신생활	20
1. 제주4·3사건 은신처 동굴 실태	21
2. 세화리 마을 다랑쉬굴 피신생활	26
3. 동광리 마을 초토화와 큰넓깨 동굴 피신생활	34
4. 선흘리 마을 동굴 피신생활	40
IV. 제주4·3사건 은신처 동굴과 기억의 공간	46
1. 제주4·3유적과 은신처 동굴	46
2. 기억의 공간으로서 은신처 동굴의 활용	49
V. 결론	64

참고문헌

<부록>

<표 차례>

<표 1> 은신처 이용 자연동굴 22
 <표 2> 다량취굴 희생자 명단 29
 <표 3> 2005년에 선정된 17개 중요유적 48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 대상 마을과 동굴의 위치 7
 <그림 2> 3·1절 시위 사망자 11
 <그림 3> 압수된 무장대의 무기들 (1948. 5) 12
 <그림 4> 산에 올랐다가 하산하는 주민들(1948. 5) 13
 <그림 5> 제2연대 토벌 사진 17
 <그림 6> 은신처 동굴 위치 23
 <그림 7> 다량취굴 내부 모습 30
 <그림 8> 다량취굴 제2굴 유물 31
 <그림 9> 다량취굴 발굴 당시 유물 32
 <그림 10> 다량취굴 발굴 당시 유물 32
 <그림 11> 큰넓케 유적도 36
 <그림 12> 큰넓케의 깨진 그릇 37
 <그림 13> 큰넓케 안의 방어벽 37
 <그림 14> 선흘리 은신처 동굴 위치 42
 <그림 15> 다량취굴 현황 52
 <그림 16> 다량취굴 재현 1 53
 <그림 17> 다량취굴 재현 2 53
 <그림 18> 영화 <지슬>의 동굴 장면 58
 <그림 19> 도틀굴 입구 59
 <그림 20> 동백동산의 <지슬> 촬영지 59
 <그림 21> 제주 안덕 동광마을 4·3길 안내도 60
 <그림 22> 큰넓케 (4·3유적지) 표지판 60
 <그림 23> 큰넓케 입구 62
 <그림 24> 도옛케 입구 62
 <그림 25> 큰넓케 유물 사진 63
 <그림 26> 도옛케 유물 사진 1 63
 <그림 27> 도옛케 유물 사진 2 63

ABSTRACT

A Study on the Residents' Life in Cave Refuges During the Jeju 4·3 Incident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experiences of Jeju residents in cave refuges during the Jeju 4·3 incident, one of the most painful sources of memories for Jeju citizens. Jeju Island has always been easily differentiable from mainland Korea, and not only due to its distance from the capital and peculiar culture, but also due to the tendency of the local population to resist authority. Indeed, throughout history Jeju has consistently shown signs of resistance and protest towards the central government. The Jeju 4·3 incident was the largest amongst these events, resulting in the deaths of thousands of innocent Jeju residents. According to official investigative reports, the incident began with the national independence day protest on March 1, 1947, when police shot into crowds of protestors, thereby increasing an already tense political atmosphere in Jeju. The armed uprising on April 3, 1948 triggered a series of conflicts between guerrilla forces of the Jeju branch of the Labour Party and the police and army search teams. This conflict resulted in the deaths of thousands of civilians. The incident ceased on September 21, 1954 with the reopening of the banned areas of Mt. Halla.

The most severe period of the massacre was during the so-called scorched earth operations from October 1948 to March 1949. These operations of the search teams aimed to eliminate the base of the guerrilla forces established in the mid-mountainous territories and cut their connections to nearby civilian villages. The authorities' plan was to send all civilians from these territories to seaside villages. Many of the villagers, however, did not relocate to the

designated areas, but rather took refuge in nearby forests and caves. They hid in those places because they feared the police and army, who were killing without distinction anyone with suspected connections to the Labour Party or any of the incidents.

These refuge caves were not just simple hideaways; some of them served as temporary homes for families or even entire villages. In this paper I examine three villages: Sehwa, Dongkwang, and Seonheul. The caves in these three villages show commonalities though each has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Darangsi cave in Sehwa village hosted approximately 20 civilians from nearby Jongdal and Hado villages. Civilians hid in that cave for almost a month after their villages were repeatedly attacked by guerrillas and the authority forces, despite being seaside villages. In the case of Dongkwang village, around 120 people hid for two months in a cave called Keunneolgwe after their village (located in the mid-mountainous area) was burned down by the army. Both in Darangshi and Keunneolgwe caves the residents tried to maintain their old lifestyle by dividing the space according to their villages or houses. People from different villages would live in separate places inside the cave, and even spaces for kitchens or bathrooms were designated. These refuge caves were usually hard to find and even harder to enter due to their narrow entrances. Once inside, however, the space widened, allowing many people to take refuge. The caves in Seonheul have similar features, but because of their rapid discovery they were used only as short-term refuges. Seonheul village was also burned down and its residents were forced to hide in four of the nearby caves. According to survivors, one of them hosted around 200 residents, before being discovered after only a few days of refuge. Most caves were discovered by the police or army and many refugees, who were mostly civilians, were killed.

The truth about these caves and the massacres related to them had been silenced for decades as the government labeled the incident as a communist

uprising. However, along with the start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the 1980s, a movement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truth of these incidents also started. The caves became important symbols of the incident as they played an important role in reinterpreting these events from the viewpoint of ordinary Jeju civilians. These caves allow for the ideological conflict to be put aside and have become symbols of the hardships endured by individuals during the incident. In 1992 the first of the caves was discovered, the Darangsi cave in Sehwa village. It was a major discovery as the remains of 11 residents who died of asphyxiation after being suffocated in the cave by the army were found. This was the first piece of evidence concerning the brutality used by authorities during the incident and it also became the first report of its nature to be reported nationwide. Despite the fact that the cave itself was blocked off and the remains of the victims were hurriedly cremated, local reporters and scholars continued researching it. Articles and documentaries were made about Darangsi and other caves as survivors began discussing these events after many decades of silence. It was not until the premier of *Jiseul* in 2013, however, that these events became known nationwide. *Jiseul* is a black and white movie about the 4·3 incident that focuses on the history of events in Dongkwang village and the Keunneolgwae cave. This movie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spreading the truth and sharing local memory about the incident in recent years. Currently, in 2016, the Education Office of Jeju has made an educational short movie about the incident focusing on Darangsi, which finally shows the official acceptance of the caves and local memories. The Jeju 4·3 incident is still considered ongoing, as many of its issues remain unsolved. However the memories of ordinary people, just like the discovery of these caves, are the keys to achieving reconciliation and coexistence, which is considered to be the aim of Jeju 4·3 incident research in the scholarly world.

I. 서론

1. 연구 목적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섬이며 현재 관광지로서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개발이 증가하는 곳이다. 제주도라고 하면 아름다운 환경과 한국의 다른 지역과는 색다른 문화가 떠오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제주도 역사 중에서 오늘날의 이미지와 크나큰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평화와 낭만의 섬에 거의 40년 동안 침묵된 비극의 역사가 있는데 그 비극은 바로 제주4·3사건이다.¹⁾

제주4·3사건이야말로 제주도 역사의 가장 큰 비극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이하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²⁾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된다.³⁾ 1947년부터 1954년까지 지속해온 7년 동안의 유혈사태에 제주도민 2만 5천~3만 명이 학살되었다고 보고 있다.⁴⁾ 특히 1948년 10월 말부터 시작된 초토화작전으로 인해 많은 도민이 집을 떠나 동굴로 피신한 사람들이 많았다.

동굴은 오래전부터 인간이 쓰는 다목적의 공간이다. 선사시대부터 은신처, 저장고, 신앙의 장소 등 여러 목적으로 사용해 왔다. 그 목적은 시대나 장소에 따

1) 사건은 역사의 변화에 따라, 또한 정치적 입장에 따라 여러 명칭을 가지고 왔으며 명칭에 대한 이견들이 분분하지만 이 연구에서 명칭의 최대한 중립성을 유지하려고 공식적인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라 제주4·3사건으로 부르겠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2003.)

2) 서청은 서북청년단이라는 우익청년단체의 명칭이다.

3)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2003, p. 536.

4) 진상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제주4·3사건위원회에 2001년까지 14,028명이 신고되었는데 희생자의 전체 수는 그보다 많은 2만5천~3만 명으로 판단된다.(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2003, pp. 536~537.)

라 달라졌지만 동굴은 인간에게의 역할이 항상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⁵⁾ 4·3사건에서 동굴의 역할은 무엇이였을까? 도민들이 바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였을 때 찾아간 곳이 대부분 마을 근처 동굴이었다. 다른 피난처도 있었지만 제주도 용암 동굴은 다른 어느 곳보다 풍부하였다. 따라서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는 동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

제주4·3사건은 20세기 한국의 큰 비극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등 외국에서 이에 대한 지식은 빈약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냉전시기 한국에서 일어났던 제주4·3사건의 실상을 주로 헝가리 등 유럽사회에 알림으로써 지역적 한계성을 넘어 전쟁으로 점철되었던 20세기 세계사의 잔혹성을 공유하고,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을 인식하고자 한다. 20세기는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학살의 역사이다. 세계대전들과 유대인 학살 등 여러 참혹한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이 시기에 한국, 그 안에도 제주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도 사례를 통해 20세기 역사의 한 부분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제주4·3사건의 배경과 전개과정을 통해 제주4·3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의 시각을 넓히고, 이를 바탕으로 초토화작전 시기 때 주민들이 동굴로 피신하여 생활하였던 실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있다. 이런 역사적 사건과 당시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연결시켜 4·3사건을 새로운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나와 관련 없는 먼 역사의 인식에서 벗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동정할 수 있는 주제를 통해 4·3사건을 가까이하고 싶다. 과연 초토화작전 시기에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왜 동굴로 피신하였고, 그 캄캄한 동

5) 한국뿐만 아니라 헝가리 동굴도 마찬가지다. 특히 수도 부다페스트의 부다 쪽에서 옛날부터 사용한 자연 동굴들이 있어 헝가리사람으로서 늘 동굴의 신비로움을 느껴 왔다. 집집마다 저장고로 사용하기도 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에 자연동굴을 사용하며 지하병원까지 만들어졌다. 동굴의 역할뿐만 아니라 제주도와 헝가리도 대학살을 겪어야 되었다는 점에서도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헝가리 유대인들이 제주도민들처럼 박해와 학살을 많이 당하였거니와 대전이 끝나고 공산주의가 되면서 한국과 정치이데올로기가 반대였지만 똑같은 냉전 시대 아래에서 침묵을 당해야 하였다. 특히 1956년 헝가리 혁명과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한다. 두 사건이 많은 면에서 다르지만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싸우는 점이 유사하다. 이렇게 두 나라의 역사에 유사한 점들이 있어 4·3사건에 관심이 생겼고 그 속에서 일반 주민들의 생존에 큰 역할이 있는 동굴을 연구의 기반으로 하였다. 은신처인 동굴이야말로 4·3사건의 상대적 상징이 되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연구가 실시되지 않았다. 이런 상태를 극복하려고 하면서 4·3연구에 조금이라도 공헌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논문 주제를 선택한 것이다.

굴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당시 사람들의 삶과 경험을 통해 사건의 실제 모습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 다음으로 동굴 같은 유적의 현재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역사는 현재에 인식해야 의미가 있다. 현대적 활용으로 인해 4·3사건 은신처 동굴들이 상징성과 현재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 상징성과 현재성의 의미를 4·3사건과 동굴의 역사적 상징화 과정에서 찾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제주4·3사건은 1980년대까지 군사정권의 정치적 배경 때문에 공식적으로 ‘폭동’으로 여겨져 왔다.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사건에 대한 담론이 민간으로부터 시작하였고, 진상규명운동이 이루어지면서 그 결과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2003)의 첫 공식적인 조사 자료가 나왔다. 보고서를 작성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2000년 1월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된 후에 출범하였다. 이는 정부기관 자료, 미국자료, 증언자료 등 종합적인 자료수집을 실시하였고 『제주4·3사건자료집』 1~11권(2002, 2003)과 진상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정부 차원에서 사건을 인정하고 그의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작업이었다. 또한 사건을 공식적으로 정의하였고 연구의 토대가 되면서 4·3사건의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두었다.

공식적인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과 후에도 민간의 연구를 개인이나 연구단체, 언론의 차원에서 수행하였다.⁶⁾ 이들은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주로 경험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민간연구단체라면 제주4·3연구소(1989~)의 활동과 역할이 중요하다. 연구소가 증언채록을 창립 초기부터 실행해 왔으며 『이제사 말함수다』(한울, 1989), 『무덤에서 살아나온 4·3 '수형자'들』(역사비평사, 2002)같은 증언자료와 ‘1000인 증언채록사업’의 결과로 2008년부터 제주4·3구술자료총서가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이제사 말함수다』의 2권은 증언자들의 개인적인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당시 정치적인 상황으로 증언자

6)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제주 4·3연구의 새로운 모색』, 제주대학교출판부, 2013, p. 33.

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제주어로 증언을 기록한 것은 제주 지역의 특징을 살린 것일 수도 있지만 타 지역민이 볼 경우는 이해하기가 오히려 어려울 수 있다. 이와 달리 증언자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대부분 표준어로 된 제주4·3구술자료 총서가 지역에 따라 2권씩, 현재까지 8권이 출판되었다.

언론의 차원에서 진상규명, 유해발굴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와 방송들이 발생하였다. 언론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민일보 4·3취재반의 『4·3은 말한다』(전예원, 1994~1998)가 있다. 『4·3은 말한다』는 총 5권에서 문헌자료와 증언들을 통해 사건의 전체적 흐름으로 사건의 진상과 시기별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다.

4·3사건에 대한 학위논문 1988년부터 양한권과 박명립의 석사논문을 시작으로 다양한 주제와 분야를 포함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⁷⁾ 현재까지 석사, 박사 논문들은 역사교육, 사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미술치료학, 한국학, 신학, 언론공보학, 국어교육, 사회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왔다.⁸⁾

이런 자료들에서는 은신처 동굴과 같은 유적들에 대한 정보는 한정적으로 찾아 볼 수 있다. 이 자료들은 주로 양민학살론의 결과로 만들어졌기에 유적에 대한 내용은 많지 않다. 유적의 상당한 연구는 1990년대 말, 2000년대에 들어서야 시작되었다. 유적을 하나하나씩 조사하는 작업은 4·3연구소의 주된 활동으로 1990년대부터 실행하고 있었으나 더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조사는 2000년대부터 시작하였다.

전반적인 조사 전에 나왔던 자료로 사건의 50주년을 기념하여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학민사, 1998)가 발간되었다. 이 연구는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출간된 책으로 잃어버린 마을 유적 중 대표적인 마을을 선택하여 진상조사를 하였다. 초토화 작전이 제주도 중산간 마을들에게 미친 영향, 즉 초토화 때문에 없어진 마을들을 보여주었다.

4·3연구소와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의 협력으로 인해 전반적인 조사가 실시되었고 제주도의 120개 마을의 596개 유적을 연구하였다. 그의 결과로 『제주4·3유적』(각, 2003, 2004)의 1,2권을 출판하였는데 1권은 제주시(북제주군), 2권은 서귀

7) 박명립, 「제주도 4·3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8.; 양한권, 「제주도 4·3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8.

8)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제주 4·3연구의 새로운 모색』, 제주대학교출판부, 2013, pp. 39~41.

포시(남제주군) 유적을 포함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전반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선택적인 조사만 이루어졌다. 이것을 나아가 4·3연구소는 『제주4·3유적 종합정비 및 유해발굴 기본 계획』(2005), 『평화와 인권의 성지, 제주시』(2006), 『4·3유적지 현장답사 자료집』(2008), 『4·3길을 걷다 : 제주4·3유적 143선』(2011)의 자료들을 만들어냈다. 『제주4·3유적 종합정비 및 유해발굴 기본 계획』은 『제주4·3유적』과 비슷한 내용인데 보존에 더욱 집중하는 제목 그대로 계획이다. 『평화와 인권의 성지, 제주시』와 『4·3길을 걷다 : 제주4·3유적 143선』은 제주시 주요 유적지들을 포함하는 자료들이다. 『4·3유적지 현장답사 자료집』은 연구소가 2008년에 열린 역사문화기행의 자료집이다. 이런 자료들에서 유적의 하나로 은신처 동굴들에 대한 정보가 많았다.

제주도 동굴 자체에 대한 자료는 지리적 자료와 역사적 자료로 구분된다. 제주도 용암동굴에 대해 손인석의 『제주도의 천연동굴: 동굴탐험·조사·연구 30년(1975~2005.8)』(2005)와 김범훈의 『제주도 용암동굴 들여다보기』(2009)가 대표적이다. 제주도 동굴의 문화적 면모를 소개하는 자료로 『제주도 천연동굴 내 문화유적 기초조사 보고서』(2000)가 있다. 4·3사건과 관련된 은신처 동굴을 다루는 자료로는 다랑쉬굴의 비극에 초점을 두는 『다랑쉬굴의 슬픈 노래』(2002)만 있다. 이 책은 다랑쉬굴의 1992년 발견으로 동굴에서 숨었던 사람들의 비극에 대한 진상규명 자료이다.

3. 연구의 대상과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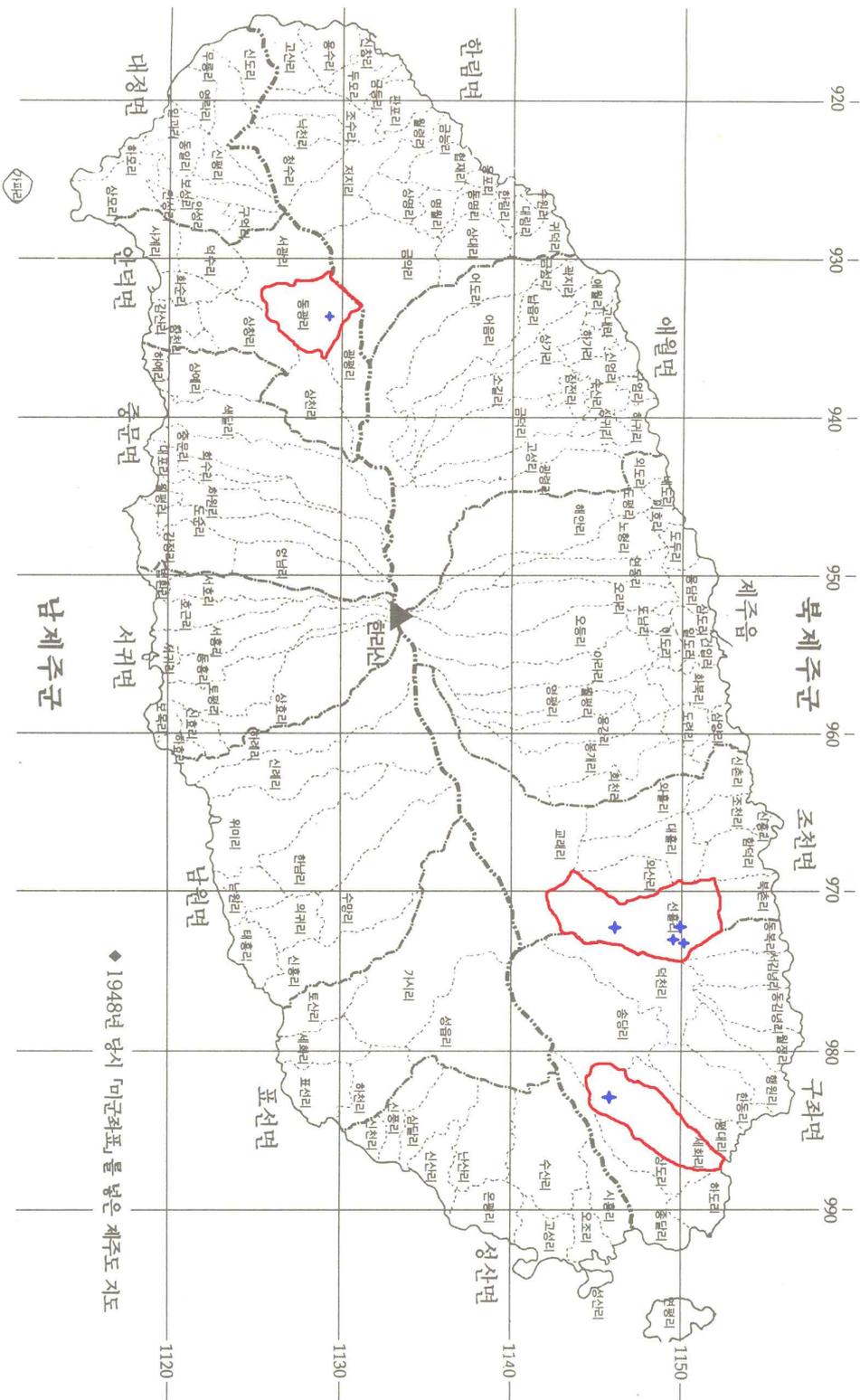
본 논문은 제주4·3사건의 초토화작전 시기 때 주민들이 동굴로 피신하여 생활 하였던 실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논문의 시간적 범위는 제주4·3사건의 전개과정에서 초토화작전 시기는 1948년 10월 말부터 1949년 3월까지 가장 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되었고, 대부분의 제주도 중산간 마을이 불에 타는 등 초토화작전으로 가장 참혹하게 집단희생 된 시기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군인·경찰의 합동 토벌작전을 피해 살아남기 위하여 마을 근처 동굴로 적극적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 공간적 범위는 제주도 내에 초토화 작전이 집중하였던 중산간 마을들이다. 제주도는 해변마을과 중산간 마을들로 구분되는데 산간, 중산간 지대는

항쟁을 하는 무장대의 근거지가 되었기에 때문에 작전이 주로 이루어진 곳이기도 하다.

이 논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세 마을의 은신처 동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세화리, 동광리, 선흘리 세 마을의 사례를 통해 초토화작전 시기의 은신 상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세 마을의 동굴들이 가장 대표적인 은신처이며,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례들이다. 선흘리의 경우에는 선흘리 마을 주민들이 4개 동굴로 피신하였으나 초토화작전으로 일찍 발견되어 동굴 근처나 다른 희생터에서 많은 주민이 희생당하였다. 세화리의 경우에는 주변 마을 주민들이 다랑쉬굴에서 거의 한 달 동안 피신생활을 하다가 토벌대에 발각되어 동굴에서 학살되었다. 동광리의 경우에는 큰넓궤에서 동광마을 주민들이 피신생활을 하였고, 토벌대들이 동굴을 발견하였을 때 주민들은 피신할 수 있었으나 며칠 후에 토벌대에게 잡혀 선흘리처럼 주민들이 희생당하였다. 나아가 본 논문에서는 초토화작전 시기에 주민들이 피신하였던 동굴들이 4·3사건의 역사적 상징화와 관련하여 역사적인 유적으로서의 현재 상징성과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증언채록을 바탕으로 하는 문헌자료와 연구 대상인 마을과 동굴, 또한 기념공간을 현장조사하였다. 은신처 동굴에 대한 구술자료는 개인의 기억에 의지하여 사건을 일반사람들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재구성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은신처 동굴의 경우에는 많은 주민들이 그 당시 희생당하거나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 조사된 구술자료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제주4·3연구소의 증언채록 결과 덕분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 또한, 제주4·3연구소 전문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현장조사는 각 마을과 은신동굴 유적을 직접 탐방하여 참여 관찰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미비한 부분은 제주4·3평화기념관의 전시 자료를 중심으로 기념 공간을 보완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 대상 마을과 동굴의 위치



II. 제주4·3사건의 배경과 전개과정

제주 4·3사건에서의 동굴로 주민들이 왜 피신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사건의 배경과 전개과정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배경과 사건의 과정을 진상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소개하고자 한다.⁹⁾ 먼저 배경과 사건이 벌어진 이유들을 살핀 후에 전개과정을 다루면서 연구의 대상인 초토화작전의 시기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1. 사건의 배경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다. 제주도는 식민지시대에 토지조사사업, 조세 부담, 자연경제구조의 붕괴, 일본인에 의한 산업 통제 등 때문에 더욱 빈곤해졌다. 사회가 어려워져 제주를 떠나 일본에서 노동자가 된 제주도 사람도 많았다. 경제적인 부담과 더불어 제주도의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이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옛날부터 제주도는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어 지리학적 위치로 인한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일본이 태평양전쟁이 시작한 1937년에 모슬포 비행장과 오무라 해군항공대를 설치하였는데 1945년에 섬 전체가 요새화되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 요새화를 위해 진지동굴, 특공기지 등을 설치하였는데 이들은 제주도민들이 실행한 작업이라 주민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다. 또한 전쟁물자의 강제공출도 주민들 사이에서 많은 불만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렇게 일본의 식민지와 전쟁은 특히 식민지 말기에 제주도에서 심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을 형성시켰다고 할 수 있다.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의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고 소련과 미국의 정치적인 싸움으로 인해 38선을 기준으로 하여 한반도를 분단하였다. 9월 8일에 미군이 도착하여 이튿날부터 한국의 미군정시대가 시작하였다. 제주도의 경우에 지리적으로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모든 것은 늦게 시작한 추세였다.

9) 제주4·3 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4·3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과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과제로 하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작성한, 현재까지 사건에 대한 공식적이고 가장 적절하고 광범위한 자료임으로 사건의 배경과 전개과정을 잘 들어내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10월 말에 들어서야 일본군의 송환이 마무리되고 11월 9일에 제59군정중대가 제주도에 도착하여 군정은 다른 지역보다 뒤늦게 실시되었다. 이런 추세 때문에 해방 직후 제주도의 정치적, 사회적 주도권을 건국준비위원회(이하 '건준')에서 비롯된 인민위원회가 장악하게 되었다. 건준은 해방직후부터 독립국가를 탄생시키기 위해 설립된 최초 정치조직이었다. 건준이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전국적으로 민간자치기구인 인민위원회들이 만들어졌는데 군정이 설치되면서 그들의 세력이 약화되고 결국 해산되었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에 인민위원회는 다른 지역보다 더 오랫동안 자치기구로서의 역할을 가질 수 있었다.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온건한 정책을 추구하는 광범위한 지지를 받던 자치기구였다. 미군정은 그의 행정기구 역할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하고 같이 치안활동을 하였다. 미군정 초기에 협력하면서 이념의 문제가 없었지만 점점 군정과 인민위원회, 또는 주민들의 사이에 대립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대립의 심화는 4·3사건이 발생하는 바탕이 되었다.

대립을 일으킨 한 이유로는 미군정이 일제시대 관리, 경찰, 그리고 일본군 경력자들을 재등용하였다는 것이었다. 식민지시대의 고난과 반친일파 분위기 속에 그들의 재등용은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당국과 주민들 사이에 결국 대립을 자극할 수밖에 없었다. 식민지의 힘든 시기가 끝난 후에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특히 일본의 감독에서 벗어난 독립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은 일본의 항복으로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신탁통치로 35년 동안의 식민지를 벗어날 수 없을까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였다.

인민위원회와 미군정 사이에 실질적으로 첫 대비가 1946년 8월 1일의 제주도 제 실시 때 발생하였다. 미군정의 의도를 의심한 인민위원회는 전라남도에서 분리시키고 제주도를 도(道)로 승격할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이것뿐만 아니라 경찰력의 강화로 인해 치안활동에도 경찰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인민위원회가 점차 배후로 물러나게 되었다. 그리고 인민위원회의 의심이 이루어지고 뱀부 계획(Bamboo plan)의 일부로 제주도에 1946년 11월 16일에 경비대 제9연대가 설치되기도 하여 제주도가 또 한 번 전략적인 지역이 되었다.

당국과의 대립에 제주도민들의 정치와 사회경제 동향이 큰 영향을 미쳤다. 해방 이후 제주도에 우파 세력이 약한 반면 좌파 세력이 강한 통일된 조직이 구

성되었다. 1946년의 정치적인 분위기는 신탁통치를 둘러싼 좌우 세력들의 대립에서 비롯되었다. 우파는 처음부터 신탁통치를 강력하게 반대하여 왔던 반면 좌파는 처음에 반대하였다가 찬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에 이런 좌우의 대립에서 차이를 볼 수 있다. 제주도는 좌파가 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통치를 강하게 반대한 경향이였다.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미군정의 정책들이 제주도의 실직 문제, 생필품의 부족, 흉년 등을 고려하지 않았고 이들에게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불만의 원인이었다. 예컨대 미곡의 자연판매제 시도가 혼란을 초래하여 일제시대처럼 미곡수집을 실시한 것도 대립의 한 이유였다. 그리고 제주도사회는 강한 민족의식과 사회의식을 소유하는, 일본에서 해방 이후 귀환 사람들로 인해 진보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국민학교, 중등학교들을 설치하는 교육열기와 학생운동들에서 이것이 두드러졌다.

이런 민감한 정치적·사회적 분위기에 더불어 냉전 시대가 시작하고 점차 심해지면서 제주도의 상황도 악화될 것을 방지할 수 없었다. 식민지에서 벗어나려는 한국 사람들의 노력과 국제적인 상황과 이데올로기 문제에 시달려 있는 신탁통치 나라들 사이의 대립은 당연하였다. 4·3사건이 벌어진 직전의 이 분위기는 그 다음 시기에 더욱 악화되었고 대한민국 수립과 다른 주로 정치적 요소들도 들어오자 상황이 심각해졌다.

2. 3·1절 시위사건과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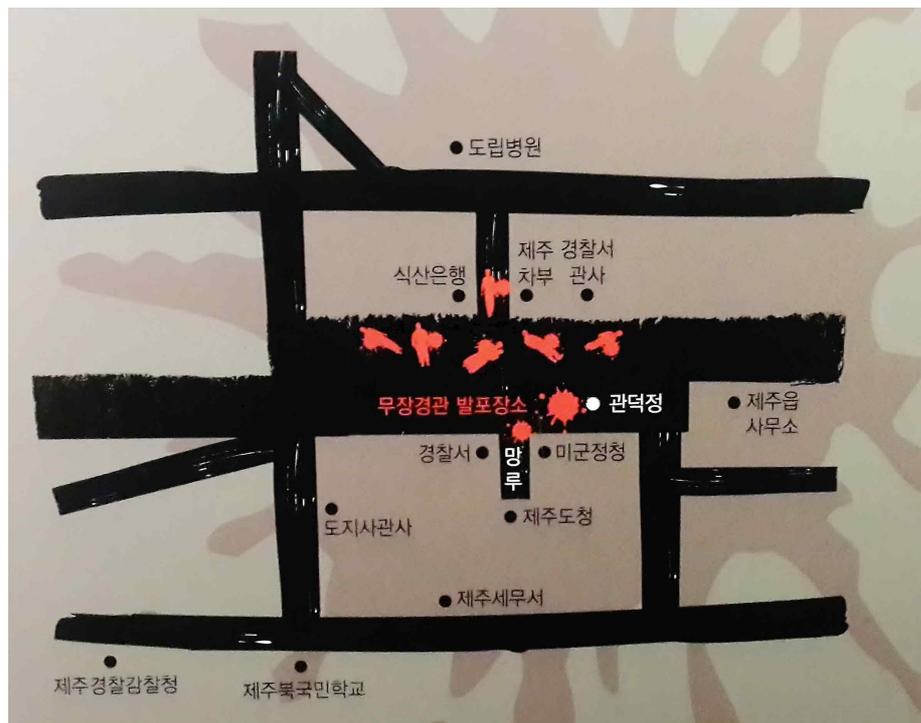
4·3사건 초기의 가장 중요한 두 날짜는 3월 1일과 4월 3일이다. 앞에 설명하였듯이 1947년 3월 1일이 사건의 시작으로 인정받았거니와 4월 3일은 사건의 명칭으로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미군정이 시작한 시기의 사회적·경제적 상황의 결과로 제주도에서 좌파세력들이 주도한 제28주년 3·1절 기념대회가 발생하였다. 1947년 3월 1일에 제주북국민학교에서 제주읍, 애월면, 조천면 등 2만 5천~3만 명의 주민과 학생들이 모여 기념식과 가두시위를 하였다.¹⁰⁾ 원래 평화적인 대회에서 한 경찰의 말에 아이가 채여 소란이 일어나면서 경찰이 주민들 사이에 발포하여 민간인 사망자 6명과

10)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2003, p. 107.

중상자 6명을 야기한 발포사건이 발생하였다. 경찰당국이 발포사건의 정당성에만 집중하였으며 제주도에 3월 10일부터 공무원, 회사원, 노동자, 교사와 학생들이 참여한 총파업도 일어났다. 또한 주민들이 그 이후로 집회나 항의를 실행하면서 경찰과의 충돌도 많이 발생하였다. 이 시기로부터 ‘붉은 섬’, 즉 제주도민들의 대부분은 좌익이라는 제주도에 대한 선입견이 생겨났고 검거선풍이 시작하였다. 그리고 군정 수뇌부의 교체와 우파청년단체들의 연대가 강화되어 우익진영의 영향력이 강화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총파업에 참여한 관리들을 파직시킨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서청 등 단체들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좌익들을 제거한다는 이유로 많은 테러를 초래하였다. 또한 1948년에 남로당의 ‘2·7구국투쟁’¹¹⁾의 결과로 제주도에 여러 폭동과 시위들이 발생하였는데 다시 한 번 검거선풍을 일으켰다. 검거선풍은 체포뿐만 아니라 경찰이 가한 고문으로 발생한 고문치사도 뜻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에서 남한의 단독선거가 확실하게 되면서 남로당 제주도당이 무장봉기를 결정하였다.

<그림 2> 3·1절 시위 사망자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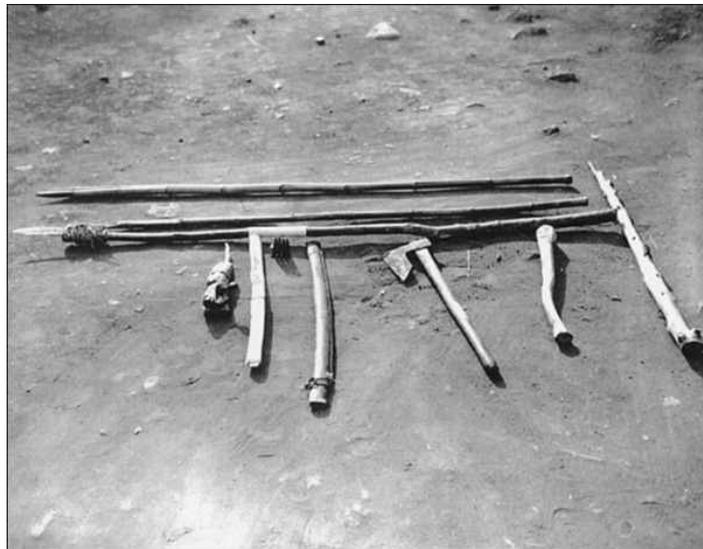


11) 남로당(남조선노동당)은 1946년에 설립된 공산주의 정당이었다. 2·7구국투쟁은 남로당의 주도로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전국적인 총파업이 벌어진 것이었다.

12) 제주4·3평화기념관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350여명의 무장대를 설치하고 1948년 4월 3일에 12개 경찰지서를 공격하면서 무장투쟁을 시작하였다. 4월 3일의 공격으로 사망자 14명, 부상자 25명 정도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¹³⁾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 당 지도부의 핵심이 젊고 급진적인 신진세력으로 교체되어 이런 극단적인 방법이 이용되었다고 추정된다. 투쟁의 이유는 우익청년단의 탄압에 저항, 단선·단정 반대, 조국의 통일독립과 반미구국투쟁이었다. 실제로 공격이 벌어진 당시 무장대는 빈약한 무기를 가지는 조직이었다고 밝혀졌다. 그러나 당국의 이념과 충돌하는 목적을 가지고 급진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큰 협박이라 여겨졌다.

<그림 3> 압수된 무장대의 무기들 (1948. 5)¹⁴⁾



사건에 대응하여 제주비상경비사령부가 설치되고 경찰과 서청 단원이 증원하여 파견하였다. 사태가 악화되면서 경비대도 간섭하게 되었는데 진압작전에 참여하기 전에 무장대 지도부와 교섭할 시도를 하였다. 이로 인해 4월 28일에 김익렬 연대장과 무장대 총책인 김달삼 간의 평화협상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72시간 내에 전투 중지에 합의하였지만 오라리 사건 때문에 평화협상이 실패하였다. 오라리 사건은 무장대와 우익청년단원들의 사이에 대립이 생겨나 5월 1일에 우익청년단원들이 오라리 연미마을 10여 채의 민가를 불태워 무장대와 충돌하게 되었

13) 경찰: 사망 4명, 부상 6명, 행방불명 2명 ; 우익인사 등 민간인: 사망 8명, 부상 19명 ; 무장대: 사망 2명, 생포 1명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2003, p. 173.)

14) <http://www.jeju43.go.kr>

다. 이 사건 이후로 상황을 평화롭게, 원인을 치유하면서 해결하는 대신 당국이 강경진압작전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작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무장봉기가 반대하는 5·10선거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러나 무장대가 주민들을 산으로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전국에서 제주도는 유일하게 2개의 선거구가 무효가 되었다.

5·10선거 이후에도 진압작전이 지속되었다. 제 9연대가 제11연대에 합편하고 부산과 대구에서도 1개 대대로 경비대 인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주로 제주도 출신 병사들이 무장대에 합류한 경우가 있어 제주도 출신 병사들이 진압작전에서 소외되기도 하였다. 응원경찰의 수도 증파하였는데 제주도 실정을 잘 모르는 경찰이나 경비대 병사들 때문에 민간인 희생이 많았다. 무장대와 민간인의 구별이 안 되어 중산간 마을 주민들을 무차별하게 체포하기 시작한 것이 이때부터였다. 그리고 이 무차별 연행은 청년들을 오히려 무장대 편으로 몰아넣었다. 7월에 9연대가 재편되면서 정부수립 전에 제주 상황을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나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수립된 후인 초토화작전 시기에 사태가 더 악화되었다.

<그림 4> 산에 올랐다가 하산하는 주민들 (1948. 5)¹⁵⁾



15) <http://www.jeju43.go.kr>

3. 초토화작전과 그 후의 상황

4·3사건은 거의 7년 동안 제주도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엄청난 피해와 희생을 가져왔다는 사건이다. 그 긴 시간 동안 사태가 완화되었다가 다시 악화된 추세를 보이는데 가장 가혹한 시기는 초토화작전을 시작할 무렵부터라고 여겨진다. 진상조사보고서를 살펴보면 1948년 10월 말부터 1949년 3월까지의 시기를 주민 집단희생기의 제목으로 지정할 정도로 많은 희생의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수많은 민간인들이 사살을 당하였으며 아무도 안심할 수 없어 숲이나 동굴에 은신한 사람이 많았다. 사람들이 은신하기 시작한 것은 이 시기 전에 주로 무장대 단원들이나 청년들에 불과하였는데 이때부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은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많은 일반인이 동굴로 은신하기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초토화작전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1948년 9월까지 무장대의 핵심지도부가 제주도를 떠나고 우기(雨期) 등으로 인해 상대적 소강상태가 유지되었는데 11월 중순부터 강경진압작전이 벌어졌다. 원래 소강상태가 있었다면 왜 작전이 필요하였냐는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정의 진압작전의 이유는 주로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국외적인 면에서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을 언급해야 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남한에, 소련이 북한에 들어가며 이데올로기 쪽에서 서로 반대하는 두 지역으로 분단되었다. 한반도 문제는 지역적인 문제의 범위에서 벗어나고 냉전 아래에서 국제적인 면모를 가지게 되었으며 제주도 사태도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미군이 철수할 때까지¹⁶⁾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 것과, 미국의 지원을 얻으려고 하기도 하며 이데올로기 전투를 하는 이승만의 사례도 이것을 증명한다. 4·3사건을 이데올로기 범위에서부터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때의 남한 정부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제주도민들이 다 공산주의자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가 아주 중요한 냉전 시대에 자기의 권리들을 실천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데올로기 그늘 아래 빠져간 것이다. 이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은 무장대도 강력한 활동을 하는 이유로 보면 맞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작은 수의 무장대의 활동을 큰 협박이라 여겨진 것이 냉전 시대의

16) 1949년 6월 29일(제주 4·3 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2003, p. 247.)

특징으로 보인다. 정부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상황을 완전히 해결할 때까지 그 해결을 위해 가혹하게 나서는 것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데 사건을 국외적인 이유로만 설명하기 어렵다. 어느 정도로 이데올로기 문제와 관련 있지만 국내적 면에서 보면 두 가지 사정이 중요하다. 하나는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 15일에 수립하여 제주도 상황이 정부의 정통성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9월까지의 소강상태가 있었다고 해도 아직 5·10선거 실패 문제 등의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진압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반란사건들이¹⁷⁾ 벌어지며 시기가 혼란스러워져 정부의 더 심한 대응을 일으켰다는 사실이다. 이 사건들이 강경진압작전 직전에 있으므로 작전의 가혹한 성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한 바 있다.¹⁸⁾

진압작전을 준비하기 위해 당시 제주도의 군사력과 경찰력을 강화하여 나갔고, 그 결과 제주도는 점차 고립되어 나갔다. 1948년 10월 5일에 경찰청장이 교체되고 10월 11일에 제주도경비사령부가 설치되었는데 이에 제주도에 있는 제9연대, 경찰대와 해군함정, 그리고 부산, 대구, 여수에서 1개 대대가 포함하게 되었다. 더불어 10월 17일에 제9연대장 송요찬이 발표한 포고문에 따라 20일부터 해안선부터 5km이외의 무허가 통행금지가 발효되었다. 18일부터 해안을 봉쇄함으로써 제주도가 고립된 상태가 되었다. 또한 4·3사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서북청년단(이하 ‘서청’)이 군인·경찰력의 강화에 한 역할도 언급해야 된다. 서청은 주로 북한에서 월남한 청년들이 1946년에 조직한 우익 운동단체였는데¹⁹⁾ 제주도에는 벌써 1947년 3·1사건 이후부터 입도하였다. 4·3사건 후에도 단원들의 수가 증가하였지만 작전을 준비하려고 1948년 11~12월에 처음으로 군·경에 편입시킨 것이다. “사상이 투철한” 서청만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두 달 동안 적어도 천명의 서청 단원이 제주도에 들어왔으며 이것이 사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17) 1948년 10월 19일에 여수에서, 11월 2일에 대구에서 반란사건이 일어났다.

18)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제주 4·3연구의 새로운 모색』, 제주대학교출판부, 2013, pp. 64~65.

19) 제주4·3연구소, 『빌레못굴, 그 끝없는 어둠 속에서』 제주4·3 구술자료 총서06, 한울, 2013, p. 271.

11월 17일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제주도 계엄령은 한국 역사의 모호한 부분인데 강경작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많은 희생을 일으킨 점이다. 계엄이란 “국가비상사태에서 그 지역 내의 행정권 또는 사법권을 군의 권력하로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제도”이다.²⁰⁾ 즉 비상사태라는 명목으로 군은 절대적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그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그에게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이가 없었다. 공식적으로 계엄령은 1948년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지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사태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혀져 있다. 계엄령의 문제는 기간이 불확실한 것 외에도 계엄법이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기에 계엄에 대한 지식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모호한 성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은 남녀노소를 불문한 제주도민들을 대학살할 엄청난 비극을 일으켰다.

11월 중순경부터 결국 강경진압작전이 시작하였다는 것은 중산간 마을의 초토화와 그 지역 주민들을 학살하는 시기가 되었다는 말이었다. 원래 중산간 지대 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킨 후 작전은 무장대의 근거지를 없애려는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그런 의도가 실패한 것은 많은 주민들이 작전 지대에 남아 있어 주민들을 구분 없이 총살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의 가혹한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은 토벌이 여러 면에서 나타났다는 것이다. 토벌대가 중산간 마을의 초토화를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무장대로 변장하며 함정토벌도 실시하고 무장대 자체도 특히 토벌대나 우익인사들과 관련 있는 마을들을 공격하였다.

중산간 마을 주민들을 해변마을로 소개(疎開)시켰는데 소개한 사람과 소개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많은 희생이 발생하였다. 소개한 주민들이 갈 곳 없이 내려갔는데도 가족 중 한명이라도 없어진 ‘도피자가족’이었다면, 사살을 당하였기에 안심할 수 없었다. 소위 도피자를 대신하여 죽이는 ‘대살(代殺)’, ‘함정토벌’, 또한 자수하면 살리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총살하는 바람에 희생자가 많이 생겼다. 그러므로 소개하였다가 다시 입산한 이들도 있었다. 아예 소개하지 않은 주민들은 찾기 힘들거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주변 숲이나 자연동굴속에 은신하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시기의 특징이다.

20)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67118&cid=46625&categoryId=46625>

작전을 시작한지 한 달이 넘어 중요한 연대교체가 실시되었다. 12월 중순경부터 말까지 대전 제2연대가 제주 제9연대의 일을 인수하여 전 부대가 바뀐 것이었다. 제2연대가 여순사건을²¹⁾ 진압한 경험이 있거니와 제주도 병사들보다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연대교체로 인해 진압작전을 지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쟁을 유발하여 12월 후반에 더욱 가혹한 사태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된다. 그 후에야 제2연대도 서청 단원들을 진압시키고 경찰서를 늘린 것 등으로 전투력을 강화시키며 3월초까지 잔인한 작전을 실행하였다.

<그림 5> 제2연대 토벌 사진



초토화작전은 3월초까지 이뤄졌는데 진상조사보고서에서 다음 시기인 1949년 3월 2일부터 1950년 6월 24일 한국전쟁이 벌어질 때까지 평정기라고 표시된다. 무장대가 약화되어 거의 궤멸된 상태이고 5·10선거도 성공하였기에 시기의 이름이 적당하지만 4월까지도 굴에서 피신자들이 발견된 것은 많은 주민들이 아직 산에서 숨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²²⁾ 초토화작전이 끝났다고 해도 주민들에

21) 여수·순천사건, 1948년 10월 19일에 전라남도 여수와 순천에서 일어난 반란사건을 가리킨다.

22) 제주 4·3 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2003, p. 329.

대한 학살이 감소하였지만 지속되었고 은신하는 경향도 유지하였다. 사건이 공식적으로 1954에 끝났는데 실제로 은신하는 게 정확히 언제까지 지속되었는지를 알 수 없다. 은신의 파도가 초토화작전 때문에 시작하였고 4·3사건의 과정에서 동굴 같은 은신처에서 숨어 살았던 것은 그 시기에 가장 대표적이었다. 그러나 3월에 작전이 끝났다고 해도 은신이 아예 종결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스럽게 작전의 결과로 은신하는 사람들의 수는 점차 감소하였을 뿐이다.

초토화작전 후에도 중산간 지역에 피난민이 많이 남아 새로 설치된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가 두 가지 작전을 실행하였다. 1949년 3월초부터이후에도 초토화작전과 비슷한 가혹한 작전이 전개된 반면 3월 말부터 선무공작의 일부로 사면계획을 실시하여 귀순자들이 많아졌다. 그 이후로 5·10재선거는 무사히 진행되었고 서청 출신 경찰과 병사들을 철수시켜 상황이 완화되었다. 또한 4월부터의 무장대간부 사살과 6월 7일에 총책임 이덕구의 사살로 인해 무장대가 상당히 약화되었다. 2연대를 이은 독립대대와 해병대도 작전을 계속하였지만 이전의 진압작전보다 작은 규모였다.

1950년 6월 25일에 북한과 남한 사이에 한국전쟁이 시작하였다. 제주도는 전쟁터가 아니었지만 훈련소가 설치되고 피난민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제주도도 전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전쟁 때문에 전국에서 보도연맹원과 반정부 혐의자들에 대한 '예비검속'이 실시되었다. 진상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예비검속은 범죄 방지의 명목으로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는 사람을 사전 구금하는 것'이었다.²³⁾ 이 시기에 한국전쟁 때문에 이념 갈등이 심해져 사상적으로 요시찰인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을 검거한 것이었다. 제주도에서는 공무원, 교사, 학생과 부녀자까지 검속이 이루어졌다. 또한 초토화 작전의 대량학살과 비슷하게 예비검속자들이 사살되었다.

이 시기에 무장대가 다시 지속적인 습격을 시작하면서 경찰과 우익인사들한테 피해를 입히고 식량을 약탈하고 청년들을 납치하는 등 무장대 활동이 다시 활발해졌다. 그러나 주로 경찰의 진압작전으로 무장대가 소멸되고 1954년 2월에 5명밖에 남지 않았다. 무장대의 마지막 1명을 1957년에 생포하였으나 4·3사건은 현재 공식적인 관점에서 1954년 9월 21일의 한라산 금족해제와 동시에 종결되었다.

23) 제주 4·3 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2003, p. 425.

4·3사건이 전개된 7년 동안 제주도 주민의 10분의 1인 3만 여명이 희생되었다. 그 중에서 폭력을 가한 무장대와 군인·경찰 피해도 있었지만 대부분 민간인 희생이었다. 특히 1948년 10월부터 1949년 3월까지의 6개월은 전체 희생자의 80% 이상이 희생된 시기였다는 사실을 보면 초토화시기의 작전들이 얼마나 가혹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²⁴⁾ 당시 희생자뿐만 아니라 연좌제나 잃어버린 마을처럼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제주도민들의 삶과 제주도 자체에 큰 영향을 미쳐 왔다. 결론적으로 이런 결과는 제주도 한국에서의 특별한 위치와 경제적·사회적 상황, 그리고 냉전의 이념 투쟁이 초래한 것이다. 사건에 대한 애매한 성격과 해결되지 않은 점들이 남아 있지만 그에 대한 의사소통과 연구,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야 현재와 미래에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24) 제주 4·3 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2003, p. 538.

Ⅲ. 제주4·3사건 은신처 동굴 실태와 피신생활

제주도는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섬이기에 화산동굴, 즉 용암동굴이 많이 있다.²⁵⁾ 천연동굴은 현재까지 총 171개가 발견되었으며 용암동굴 136개와 해식동굴 35개로 나누어진다.²⁶⁾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동굴의 수는 진지동굴 때문에 더 증가하였다.²⁷⁾ 좁은 섬에 이렇게 많은 동굴의 존재는 4·3같은 사건에 은신처로 사용하게 된 것을 초래하였다.

이 장에서 먼저 은신 동굴의 실태를 소개한 후에 대표적인 동굴들의 사례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세화리·동광리·선흘리의 동굴들을 중심으로

25) 대한민국 문화재청의 정의에 따르면 동굴이란 지하 암체 내에서 천연으로 만들어진 공동으로서 적어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출입이 어려우나 연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한다.(김범훈, 『제주도 용암동굴의 보존 및 관리 방안』, 제주대학교 학위논문, 2007.) 정의만 보면 동굴은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인간의 접촉 없이 동굴의 정의도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천연동굴은 성인상과 형태상에 따라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형성된 암석으로 석회동굴, 화산동굴, 사암동굴, 해식동굴, 얼음동굴 등으로 구분된다.(손인석, 『제주도의 천연동굴: 동굴탐험·조사·연구 30년 (1975~2005.8)』, 나우, 2005.) 제주도는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섬이기에 동굴의 대부분 화산동굴, 다른 이름으로 용암동굴인데 바다 쪽에 해식동굴도 존재하고 있다. 제주도의 남북과 반대로 동서 방향으로 넓고 낮은 지대이기 때문에 많은 동굴이 이 지대를 중심으로 위치하며, 특히 구좌읍과 한림읍의 동굴 수량이 상당히 많다. 용암동굴은 용암이 흘러내리고 윗부분이 냉각된 후에 내부가 계속 흘러내리면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김범훈, 『제주도 용암동굴의 보존 및 관리 방안』, 제주대학교 학위논문, 2007.) 2007년에 한라산, 거문어름 용암동굴계와 성산일출봉이 제주도 화산섬과 용암동굴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동굴은 제주도의 상징이 되고 현재 제주도 주요 관광지 중 하나다. 공개된 동굴이 제주도 동굴의 수량보다 굉장히 적은 것으로 보인다. 관광지로 유명해진 동굴 외에도 수많은 동굴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동굴의 보호를 위해 비공개하거나 관광지로 삼지 않아 연구자나 주민들 제외하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현재 사람들이 동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동굴은 옛날 시대부터 인간이 다양하게 사용하던 공간이었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동굴의 사용에 대해 많은 자료가 없지만 4·3사건 때 은신처로 사용된 것 외에 주거지로서의 사용도 언급할 수 있다. 주거지로 해안에서 500m이상 내륙에 있는 동굴입구와 해안에서 30m이내의, 아니면 하천 절벽의 바위그늘 집자리를 일시적이나 단기적으로 쓴 것이었다고 추정된다. 북촌리 유적 덕분에 초기철기시대(B.C.300~0)부터 단기적으로 집자리로 사용되었다고 발견하였고 다음 시대에(탐라시대전기 A.D.0~500, 후기A.D.500~900) 동굴과 바위그늘 주거지로서 확대되었다고 추측된다. 송나라 구양수의 新唐書東夷傳擔羅國條(신당서동이전담라국조)에 의하면 탐라국 “집은 여름에는 풀로 헤인 집에 살고 겨울에는 굴속에서 산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동굴이 추위를 막아주는 공간으로 계절적인 주거지였다는 기록이다. 그러나 제주도 천연동굴 내 문화유적 기초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11개의 동굴 유적도 상대적 많은 편이지만 33개의 바위그늘집자리가 더 많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대상인 4·3사건 때 은신하게 된 동굴 중 빌레못굴만 유물이 발견되었다는 기록하고 있다. (제주도 편, 『제주도 천연동굴 내 문화유적 기초조사 보고서』, 제주도 2000.)

26) 손인석, 『제주도의 천연동굴: 동굴탐험·조사·연구 30년 (1975~2005.8)』, 나우, 2005, p. 41.

27) 현재까지 약 120개 오름 등지에서 일본군 동굴진지가 구축됐다고 파악된다.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역사문화진흥원 『일제 동굴진지 등록문화재 종합 학술조사 보고서 I』 제주역사문화진흥원, 2008.)

동굴 은신처들의 유사점과 차이점들을 보여주면서 세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다.

1. 제주4·3사건 은신처 동굴 실태

4·3유적은 “4·3과 관련하여 역사상으로 남아 있는 사건의 자취와 유물”을 말한다. 사건과 관련된 잃어버린 마을·성·은신처·희생터·수용소·주둔지 등이다. 4·3유적 중에서 은신처는 토벌대와 무장대를 피하기 위하여 여러 자연적 엄폐물이 있는 곳을 찾아 제주도민들이 숨었던 장소라고 한다.²⁸⁾ 동굴은 바로 이런 은신처였다. 동굴 외에도 오름·밭·숲 같은 데도 은신처로 이용되었으나 동굴처럼 현재에 은신처와 희생터의 상징으로 나타날 정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4·3사건 동안 수많은 동굴이 은신처로 쓰게 되었지만 제주4·3평화공원의 책자에서 4·3유적으로 빌레못굴과 다랑쉬굴, 목시물굴의 동굴 3개만 열거된다. 가장 대표적인 동굴 다랑쉬굴의 복제는 박물관에서 전시되었다. 그러나 『제주 4·3유적』 1~2권에서 찾을 수 있는 ‘은신처’와 ‘은신처 및 희생터’ 총 45개 중에서 27개가 동굴이며 다른 은신처보다 많았다. 또한 일본군이 만든 진지동굴로는 3개가 은신처로 기록되어 있다. 『제주4·3유적』에서 나타나는 은신처로 사용하였던 자연동굴들은 다음과 같다.

<표 1>에 나타난 30개 은신처 동굴의 대부분인 26개 옛 행정구역인 북제주군, 현재 제주시에 위치하고 있다. 선흘리처럼 어떤 마을에서 동굴 몇 개가 동시에 이용되었는데 다른 마을에서 은신처로 이용한 동굴 하나도 기록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과연 여기에서 기록한 동굴들 외에 다른 동굴도 은신처로 이용되었을까? 한편 노형동의 배염나리케와 오라동의 도노미당도 제주4·3평화재단과 연구소가 2011년에 작성한 『4·3길을 걷다 : 제주4·3유적 143선』에서 은신처로 추가되어 있다. 또한 『4·3은 말한다』를²⁹⁾ 살펴보면 앞의 두 책에서 언급한 마을 외에도 은신처인 동굴을 발견할 수 있다. 『제주4·3유적』에서 21개 마을에서 동굴 30개가 있는 반면 『4·3은 말한다』의 초토화작전을 다루는 4~5권에서 다른 9개 마을에서도 동굴이 나타난다.³⁰⁾ 따라서 기존에 조사 보고된 은신처 동굴 30개보다는 더

28) 제주도, 제주4·3연구소, 『제주4·3유적 I』, 각, 2003, pp. 11~12.

29) 제민일보 4·3 취재반, 『4·3은 말한다』1~5권, 전예원 1994~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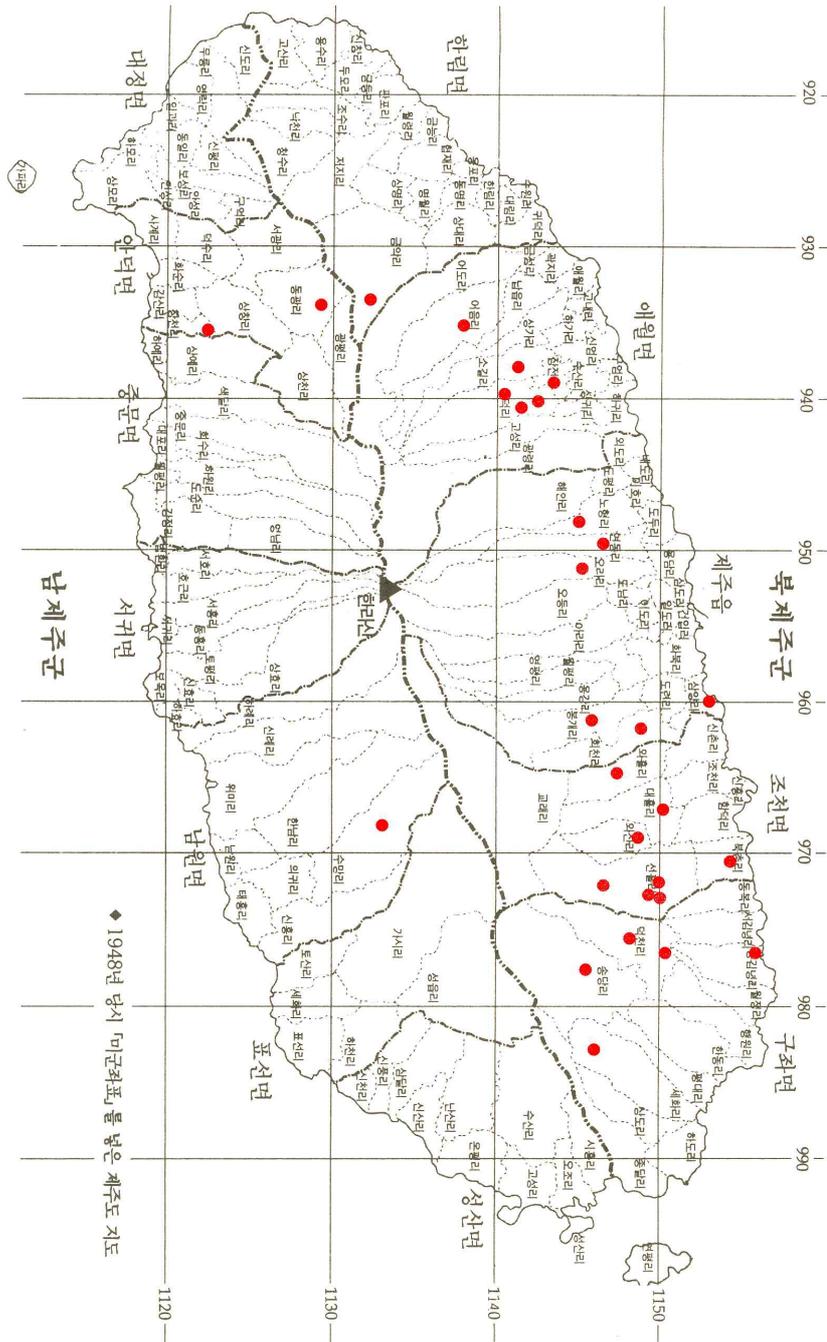
많은 은신처 동굴이 존재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4·3은 말한다』에서 유적으로는 인정된 동굴들 외에 주로 현재 서귀포시인 남제주군 마을들에 위치한 동굴들이 있다. 이것은 대부분 증언에 따라 동굴이라는 공간만 가리키며 어느 동굴인지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은신처로 현재까지 인정된 동굴을 표시하는 <그림 6>만 봐도 은신처 동굴이 제주도 곳곳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은신처 이용 자연동굴³²⁾

군명	위 치		동굴 이름
	읍·면명	리명	
북제주군 ³¹⁾	제주읍	연동리	영내 고냉이굴
		삼양리	별랑 뒷동산굴
		봉개리	고냉이술굴
			대밭굴
	조천면	회천리	석구왓굴
		북촌리	마당굴
		와흘리	와흘굴
		와산리	굴거리굴
		대흘리	통물흙굴
		선흘리	대섭이굴
			도톨굴(반못굴)
			목시물굴
			벤벵디굴
		구좌면	세화리
	김녕리		부녀자 피신 민가 굴
	덕천리		옷산전케
			큰꽃검흙굴
	송당리		가시남동굴
	애월면	장천리	썸동산굴
		소길리	베나모를굴
		유수암리	방여밭굴
			용달굴
			절모를굴
			외장굴
		어음리	빌레못굴
	금악리	개역빌레굴	
소계	4개 읍면	18개리	26개
남제주군	안덕면	창천리	논얏은밭굴
		동광리	큰널굴
	도옛굴		
남원면	수망리	사리물굴	
소계	2개 읍면	3개리	4개
총계	6개 읍면	21개리	30개

30) 9개 마을은 온평리, 가시리, 영남리, 상천리, 신평리, 상모리, 행원리, 신희리, 서흥리이다.

〈그림 6〉 은신처 동굴 위치³³⁾



- 31) 현재 행정구역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행정시와 면에서 읍으로 바뀐 경우가 많지만 4·3 당시 행정단위 이름으로 표시한다.
- 32) 은신처로 표시된 항목은 27개이지만 동굴은 실제로 30개이다. (제주도·제주4·3연구소, 『제주 4·3유적 I』, 각, 2003, pp. 11-12.)
- 33) 『제주4·3유적』, 『4·3길을 걷다 : 제주4·3유적 143선』

논문 대상인 동굴의 대부분은 초토화작전 때 중산간 지대에 피난처로 이용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처음으로 중산간·산간 지대로 은신하기 시작한 것은 1947년 3·1절 시위사건 이후로 당국과 주민 사이에 대립이 시작하면서 주로 청년들이었다. 많은 일반 주민들이 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1948년 5·10선거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그 때는 선거 반대만 하였으며 짧은 시간 동안 산에 있다가 하산하고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다. 주민들의 이런 은신하는 선행을 보면 초토화작전 시기에 이미 익숙한 대로 은신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굴을 전반적으로 은신처로 사용하는 것은 초토화작전 시기에 대표적이었다. 1948년 10월부터 중산간 지역에서 군인·경찰의 진압작전이 시작하자 주민들이 근처 숲이나 동굴로 은신하였다. 초토화작전이 중산간 마을에 집중하여 대부분 동굴들도 그런 중산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김녕리, 삼양리 등 해변마을에 있는 동굴도 몇 개 있었지만 은신하는 게 중산간 지역의 특징이었기에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다.

물론 산사름덜이 우리보고 안올라가면 군인한테 다 죽는다고 허연 올라간 겁주...그러면 젊은이덜은 굴에도 간 숨고, 뭐 아지트에도 숨고 해십주게. 그게 꼭 산사람덜이 더 좋아서는 아님주. 여기도 무섭고, 저기도 무섭고...목숨은 붙여야 되고...어떻게 험니까?...저도 사람덜이 많이 가는 쪽을 택허단 보난 내려가지 못해십주...사태에 사람덜이 보초를 서단 군인덜이 왁시든, ‘노랑개 왁저’ 허영 마을에 다 얘기해두고, 굴에 가서 숨읍주게.

우리가 굴에 숨을 때 허는 말들이, “이제 늦어도 한 달만 있으면 해방이 된다”고, 그래서 나도 같이덜 숨어십주. 그때 한 사름이 쌀 서 말, 숯 한 가마하고, 석유 한 되, 장물 한 되, 또 간대기(풍로) 하나, 밥사발 하나, 국사발 하나 해서 요렇게 한 달만 살면 해방이 된다고...굴 속으로 들어덜 가십주. 위에서 시킨거라고 봐야 합주. 여하튼 한 달만 꼼짝허지 않고 거기서 살기로덜 허고 들어간 겁니다.³⁴⁾

위의 증언은 와흘리 주민들의 동굴로 피신한 사례이다. 이 증언을 통해 중산간 마을 사람들이 은신하게 된 이유와 그들이 은신에 대한 사고방식을 발견할 수 있다. 주민들이 산으로 피신하게 된 원인은 당국의 작전이 심해지면서 군인한테 죽을까봐 두려워하였던 것이었다. 초토화 당시 중산간 마을 주민들이 해변마을로 소개하거나 중산간 지대에 은신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였다. 가족들

34) 제주4·3연구소, 『이제사 말헬수다』 한울, 1989, pp. 110~112.

이나 다른 친척, 친구들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집을 떠나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해변마을에 친척이 있는 사람들은 친척 집에 갈 수 있었지만 갈 곳이 없는 주민들도 많았다. 원래 당국은 주민들을 소개시키면 무장대와 구별이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해안가로 이동하지 않고 산이나 동굴로 피신한 주민들이 많아 구별이 쉬운 상황이 아니었다. 실제로 해변 지대로 이동해도 주민들이 안전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2장에서 설명하였듯 중산간 마을 출신이나 ‘도피자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학살당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소개하는 것보다 집이 방화되어도 집과 가까운 곳인 익숙한 데에 머무르는 것이 무장대의 설득과 함께 더불어 선호되었다. 또한 섬의 공동체성이 강하여 사람들이 많이 가는 쪽으로, 같이 가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초토화가 시작하였을 때 주민들이 이렇게 무장대와 접촉하기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피신생활을 하게 되었다. 일반사람들이 토벌대와 무장대도 두려워하였지만 토벌대를 더 무서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무장대는 아무래도 같은 섬사람들이고, 마을사람들이었던 반면 토벌대를 이미 1947년 3·1절 시위 발포사건과 그 이후의 주민과 당국의 충돌 때문에 부정적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개도 많이 당하였지만 많은 주민들이 당국을 못 믿거나 무서워하면서 가족이나 공동체로서 같이 숨기도 하였다. 동굴로 숨었을 때 주민들이 필요한 음식만 가지고 한 달만 숨어서 살고 있으면 다시 집에 갈 수 있다고 믿었던 것도 같은 이유였다. 그래서 동굴로 피신하였을 때 그릇과 밥을 만들 수 있는 도구와 그 짧은 시간 동안만 충분한 음식을 가져갔던 것이다.

토벌대가 온다는 신호가 있으면 낮에 동굴로 피신하고 저녁에 다시 집이나 움막이 남아 있는 마을로 내려온 것이 일반적이었다. 집이나 움막이 없어도 밥을 하거나 물 구하기가 저녁에 이루어줄 수밖에 없었다. 일찍 발각되어 단기적으로 이용하였던 동굴이 있었던 반면 장기적으로 몇 개월 동안 숨을 수 있었던 동굴들도 있었다. 그러나 많은 동굴이 토벌대에 발견되어 피난한 주민이 희생되거나 체포되었다.

2. 세화리 마을 다랑쉬굴 피신생활

다랑쉬굴은 구좌읍 세화리의 중산간 지대에 있는 다랑쉬마을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다랑쉬굴과 다랑쉬마을의 명칭은 그들보다 오래전부터 존재한 다랑쉬오름에서 유래하였다. 다랑쉬(ㄷ랑쉬, 달랑쉬)란 명칭에 대한 주로 세 가지 설명이 있는데 하나는 '오름 굽부리에서 쟁반같은 보름달이 솟아 오르는 모습이 가관'이라는 말에서 유래한다.³⁵⁾ 다른 두 가지 언어학적 해석은 다랑쉬, 또는 월랑봉이라고 부르는 것은 높은 봉우리라는 뜻을 가진 달수리에서 변화된 명칭과 작은 진흙 논을 뜻하는 다랑이와 수렁의 말을 붙여진 명칭이라고 설명된다.³⁶⁾ 동굴의 명칭은 1992년에 발견에 대해 처음으로 알려졌을 때 사람들이 다랑쉬굴로 보도한 후 유명해졌다. 다랑쉬굴이 위치한 지역의 이름은 '선수머세'이지만 다랑쉬오름과 마을 때문에 다랑쉬굴로 불려졌다고 한다.³⁷⁾ 다랑쉬마을은 초토화작전 전에 특별한 일이 없었던 마을이었지만 소개령이 내리자 마을 주민 40여 명이 모두 떠났으며 결국 잃어버린 마을이 되었다.

다랑쉬굴의 사건의 특징 중 하나는 피신자들의 신원으로 볼 때에 다랑쉬마을 주민이 아니라, 세화리 주변 마을인 종달리와 하도리 주민들이 피신해 생활하였던 점이다. 많은 은신처 동굴들은 마을 근처에 위치하여 그 마을사람들이 사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다랑쉬굴 사건의 경우에는 4·3사건의 중산간 마을과 해변마을의 대비에서 비롯된 지역적인 특징과 다랑쉬굴의 특별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제주도 마을들은 옛날부터 해변과 중산간 지대로 구분되는 경향이였지만 4·3사건으로 인해 이 대비는 강화되었다.³⁸⁾ 무장대가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산간 지역이 근거지가 되었고 경찰과 군대의 근거지는 주로 해변마을에 있었다.³⁹⁾ 이런 상황에서 1948년 11월부터의 초토화작전이 시작되자 토벌대는 무장대의 근거지, 즉 무장대와 연락하거나 그들을 도와주는 마을들을 없애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토벌

35) 제주민예총4·3문화예술제사업단, 『다랑쉬굴의 슬픈 노래』, 각, 2002, p. 17.

36) 제주4·3제50주년 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학민사, 1998, p. 284.

37) 양조훈, 『4·3 그 진실을 찾아서』, 선인, 2015, p. 110.

38) 제주4·3제50주년 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학민사, 1998, p. 16.

39) 제주4·3제50주년 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학민사, 1998, p. 14.

대나 우익인사들의 집과 가족이 있는 마을을 무장대의 습격 대상이 되었다. 그렇지만 무장대의 습격보다 토벌대의 작전이 일으킨 학살이 더 많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⁴⁰⁾ 중산간 지역에서 사는 주민들은 그 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큰 위협에 처하였다. 그들은 초토화작전 때 집과 재산을 잃고 많은 고통을 당해야 하였다. 이와 달리 해변마을들에 초토화작전이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집결시키고 도피자가족과 같은 이유 등으로 총살을 당한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비교를 하여도 다랑쉬굴의 사건과 관련 마을들을 일반화하는 것은 어렵다. 세 마을은 다 해변 지역이 있는 마을인데 그 중에서 세화리와 종달리의 지역은 중산간까지 이르고 하도리는 해변마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자들은 원래 다랑쉬굴이 있는 세화리의 주민들이 아니고 종달리와 하도리 주민들이었다. 이런 결과를 이해하려면 다랑쉬굴 사건의 주역을 맡은 세화리·종달리·하도리의 초토화 시기의 사건들을 살펴봐야 한다.

다랑쉬굴이 위치한 세화리는 1932년의 해녀항일운동의 근거지였으며 1947년에 3·1대회를 개최한 마을이었다. 그러나 세화지서가 설립하게 되며 토벌대의 근거지가 되었다.⁴¹⁾ 1948년 12월 3일에 무장대의 습격을 받았고 많은 주민들이 희생되어 이 사건은 토벌대의 보복을 불러들였다. 그러나 세화리는 해변마을이면서도 중산간까지 이르기 때문에 다른 모습도 가졌다. 중산간 지역 마을들이 다랑쉬마을처럼 소개당하였지만, 중산간 지대는 오히려 피신의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다랑쉬오름은 구좌면 유격대의 전략적으로 요충지였다고 추정하는 바도 있다.⁴²⁾ 증언자인 채정옥 씨의 증언을 살펴보면 자신은 납치되어 다랑쉬굴 근처와 굴속에서 살았고, 다랑쉬굴로 무장대인 ‘산사람’들이 보냈다는 것도 무장대의 근거지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다랑쉬굴의 희생자들을 살펴보면 당시 일반 주민들도 이 지역으로 은신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랑쉬마을처럼 세화리 주민들이 해변으로 이동하였지만 종달리·하도리 주민의 일부는 여기로 피신하였

40) 신고된 희생자의 78,1%는 토벌대에 희생된 반면 12,6%는 무장대에 희생됐다고 기록하고 있다.(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2003, p.537.)

41) 제주도·제주4·3연구소, 『제주4·3유적 I』 각, 2003, p. 459.

42) 제주민예총4·3문화예술제사업단, 『다랑쉬굴의 슬픈 노래』, 각, 2002, p.17 ; 제주4·3제50주년 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학민사, 1998, pp. 285~286.

다는 것이 밝혀졌다. 다랑쉬굴에서 발견한 시신 11구 중 종달리 주민이 7명과 하도리 주민이 4명이었다.

종달리와 하도리는 해변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세화리와 달리 토벌대의 주목을 받아 토벌대로부터 습격을 당하였다. 하지만 세화리는 무장대가 세화지서를 주요 목표로 삼았지만 오히려 우익 사람들과 토벌대를 살해하기 위해 세화리 인근 마을사람들이 무장대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었다.⁴³⁾ 1947년에 마을 청년들이 경찰 3명을 집단폭행한 6·6사건으로 인해 종달리가 토벌대의 주목을 받았다고 한다.⁴⁴⁾ 1948년 11월에 토벌대와 무장대의 공격을 겪고 12월 4일 세화리 습격 당시에도 무장대가 종달리로 들어가 주민 8명이 학살된 후에 토벌대의 보복에 의해 세화지서에 있는 주민 16명과 종달리 주민 10여 명이 더 희생되었다.⁴⁵⁾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피신하게 된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종달리에 있는 ‘고지된밭’이라는 지역의 크고 작은 동굴들과 세화리의 다랑쉬굴까지 은신한 사람도 있었다.⁴⁶⁾

하도리는 종달리와 비슷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도리도 일제시대 항일운동과 해녀항쟁의 중요한 마을이었다. 그의 결과로 4·3사건 당시 구좌면에서 가장 많이, 140여 명이 희생당한 마을이었다.⁴⁷⁾ 하도리를 위협한 무장대와 토벌대의 싸움은 1948년 5월부터 시작하여 11월에 종달리처럼 많은 피해를 일으켰다.⁴⁸⁾ 무장대가 우익과 관련된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을 사살하고 토벌대는 도피자가족을 총살하는 사태가 반복되었다. 12월 3일에 무장대가 하도리 공회당을 방화한 후 12월 5일에 도피자가족 15 여명이 희생되었다.⁴⁹⁾ 이런 무차별 학살의 반복 때문에 하도리 주민들도 피신하였고 다랑쉬굴과 송당리의 가시남동굴에 많이 숨었다고 밝혀졌다.⁵⁰⁾

43) 제민일보 4·3 취재반, 『4·3은 말한다』 5권, 전예원, 1998, pp. 25~26.

44) 제주도, 제주4·3연구소, 『제주4·3유적 I』, 각, 2003, p. 519.

45) 제민일보 4·3 취재반, 『4·3은 말한다』 5권, 전예원, 1998, pp. 32~33.

46) 제주도, 제주4·3연구소, 『제주4·3유적 I』 각, 2003, p. 519.

47) 제주도, 제주4·3연구소, 『제주4·3유적 I』 각, 2003, p. 511.

48) 제주도, 제주4·3연구소, 『제주4·3유적 I』 각, 2003, pp. 511~513.

49) 제민일보 4·3 취재반, 『4·3은 말한다』 5권, 전예원, 1998, pp. 28~29.

50) 제주도, 제주4·3연구소, 『제주4·3유적 I』 각, 2003, pp. 511~513.

다랑쉬굴은 세화리에서 멀리 남서쪽으로 6km 지점에 해발 170m에 위치하고 있다. 동굴 자체가 상대적 큰 동굴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략 60cm 직경인 좁은 입구 때문에 찾기가 힘든 굴이다. 굴 안에서 높이 약 1.2m, 길이 2m의 통로가 제1굴과 제2굴을 두 공간으로 나눈다.⁵¹⁾ 여러 증언 자료들을 통해 볼 때에 이 동굴에서 20여 명이 피신생활을 한 것으로 추정되지만,⁵²⁾ 발견된 시신들의 정확한 명단은 알 수 없다. 1992년 4월 4일에 발표한 희생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⁵³⁾

<표 2> 다랑쉬굴 희생자 명단

이름	나이	성별	출신마을
강태용	34	남	종달리
박봉관	27	남	
고순환	27	남	
고순경	25	남	
고태원	25	남	
고두만	21	남	
함명림	21	남	
김진생	51	여	하도리
부성만	24	여	
이성란	24	여	
이재수	9	남	

<표 2>에 따르면 다랑쉬굴에서 학살당한 사람들은 종달리 청년 7명과 하도리 노인을 포함하는 여성 3명과 아이 1명이었다. 아이와 여성의 시신을 발견한 것은 경찰의 주장과는 달리 주민들이 은신하였다는 것과 4·3사건 당시 토벌대의 무차별적인 학살에 대한 증거이었다고 발견 당시 강조되었다. 주요 증언자 채정옥 씨도 동굴의 피신자들이 도피자가족과 납치된 사람들이었다고 증언하였다.⁵⁴⁾ 『다랑쉬굴의 슬픈 노래』에서도 희생자들이 김진생 씨 일가와 고순경 씨 형제처럼 가족단위 피신자들이었다고 주장된다.⁵⁵⁾ 희생자 중에 7명은 청년이었지만 그 이유로만 무장대였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당시는 청년들에 대한 그런 선

51) 양조훈, 『4·3 그 진실을 찾아서』, 선인, 2015, pp. 108~109.

52) 제주4·3연구소, 『평화와 인권의 성지, 제주도』 제주도, 2006, p.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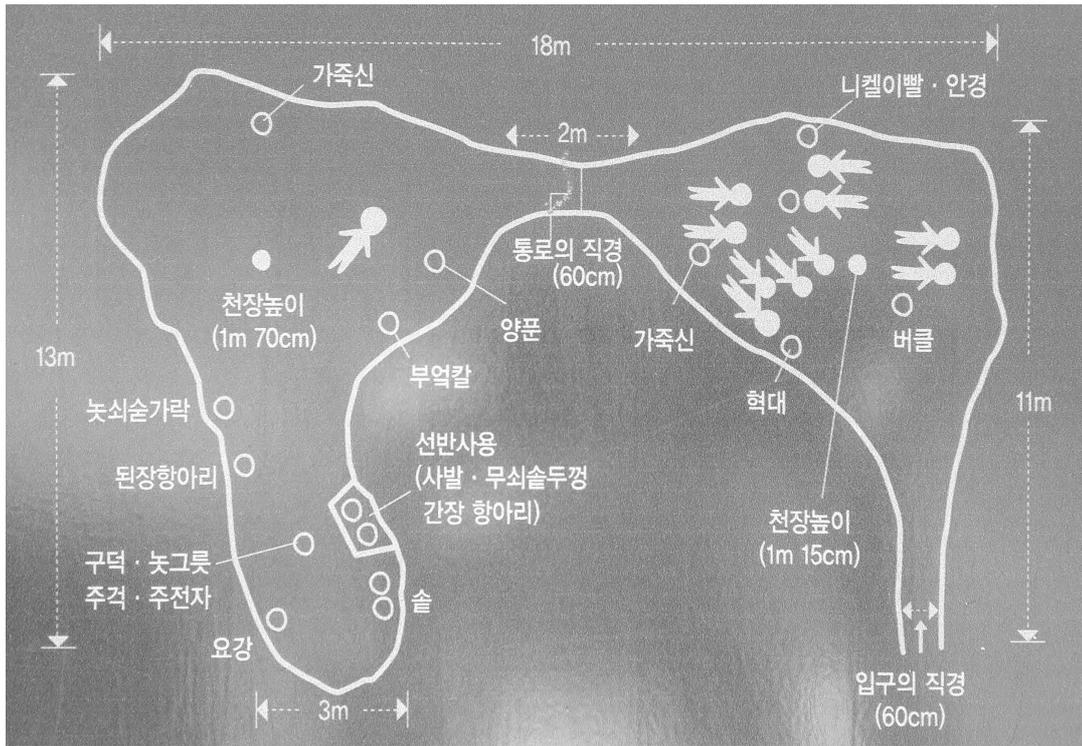
53) 제민일보 4·3 취재반, 『4·3은 말한다』 2권, 전예원, 1994, p. 366.

54) 제주4·3연구소, 『평화와 인권의 성지, 제주도』 제주도, 2006, p. 39.

55) 제주민예총4·3문화예술제사업단, 『다랑쉬굴의 슬픈 노래』, 각, 2002, pp. 98~99.

입견이 있었기에 청년들이 숨을 수밖에 없었다. 종달리와 하도리에 발생한 무차별 학살사건들을 생각하면 청년들은 커녕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피신하였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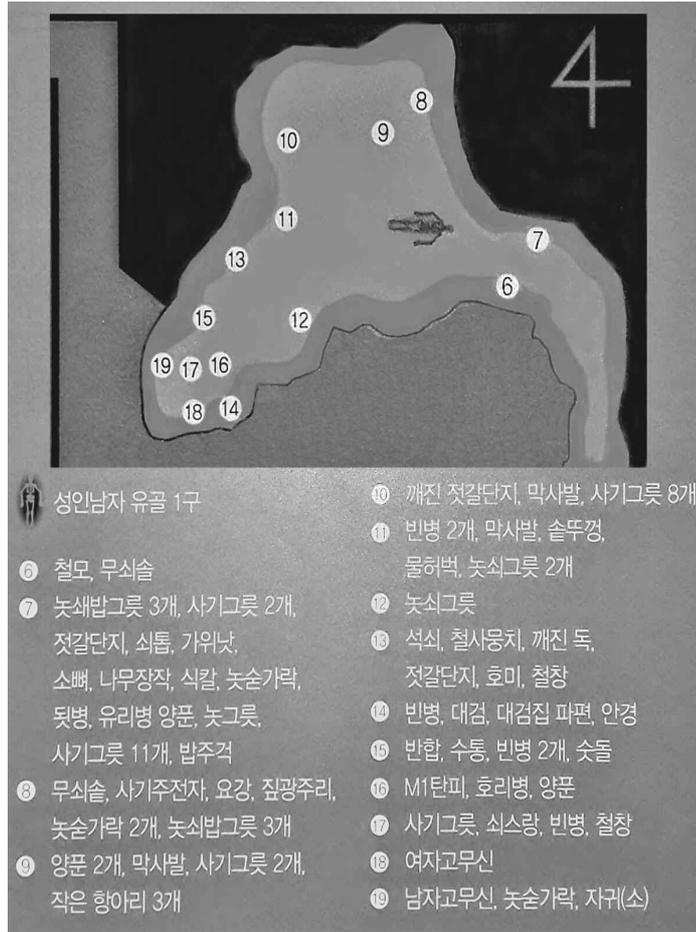
<그림 7> 다랑쉬굴 내부 모습⁵⁶⁾



동굴에서 발견된 유물들이 종달리와 하도리 주민들의 사건 당시 생활상을 잘 보여준다. 발견 당시 피신생활을 위한 생활용품, 생활도구인 유물들이 대부분으로 사건 당시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 중에서 단추·버클·안경·가죽신 등 주민들이 입었던 의복류와 그릇·단지·허벅·숟가락·숯 같은 주방도구들을 가장 많이 포함하는 일반 생활용품들을 발견할 수 있다. 동굴의 내부에 대한 <그림 7>을 살펴보면 의복류를 제외하고 생활용품의 대부분 시신이 하나만 있었던 제2굴에서 확인되었다. 동굴의 공간을 원래 집에서 익숙한 것처럼 구별하고 생활용품들을 보관한 것으로 보인다. 이 그림을 보면 제2굴의 공간이 마치 부엌처럼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8>을 살펴보면 제2굴에 있었던 유물들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56) 다랑쉬굴 현장 표석

<그림 8> 다랑쉬굴 제2굴 유물57)



제2굴에 있는 유물들의 대부분은 지방도구인을 확인할 수 있다. 유물 중에서 밥을 먹을 때 쓰는 놋쇠그릇 · 사기그릇 · 낫손가락 · 밥주걱의 수는 상당하다. 또한 음식을 만들거나 보관하는 데 쓰는 젓갈단지 · 항아리 · 뒷병 · 막사발 · 양푼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석쇠와 소뼈가 남아 있다는 것을 보면 소고기도 먹었다고 알 수 있다. 고기를 먹는 것은 사건 당시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지만 집에서 가져왔거나 동굴에서 나와 찾을 수도 있었다. 특히 물을 찾는 게 힘들었기에 물이나 다른 액체를 보관하는 빈병 · 호리병 · 주전자들은 생존에 아주 중요하여 동굴 생활에서 중요한 도구들이었다고 추정된다. 유물 중에 요강이 있는 것은 동굴 안에서 특히 낮에 나오기 위험하여 대소변도 동굴 안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 유물 중에 지방도구 외에 가위낫 · 호미 · 대검 · 쇠스랑 · 철창이 있었

57) 제주4·3평화기념관

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의 일부는 농사 하는 도구들이지만 2장의 <그림 3>에서 보이다시피 무장대의 무기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 도구들을 청년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가져갔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유물 중에 M1탄 피 하나가 남아 있어 누군가가 동굴에서 소총을 쏜 적 있는데 정확히 누가 하였는지 알 수 없다.

<그림 9> 다랑쉬굴 발굴 당시 유물



<그림 10> 다랑쉬굴 발굴 당시 유물



다랑쉬굴에서 피신하였던 사람들의 학살사건은 1948년 12월 18일에 제9연대의 진압작전으로 벌어진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없으나 증언채록을 통하여 그의 비극이 알려졌다. 공식적인 자료에서는 다랑쉬굴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미군 정보보고서에 의하면 12월 18일에 곧 제주도를 떠나려는 제9연대 제2대대의 마지막 작전이었다고 기록한다. 이 날, 130명을 사살하고, 50명을 포로로 잡았으며 소총 1, 칼 40, 창 32개를 압수하였다.⁵⁸⁾ 이것을 보면 다랑쉬굴의 학살은 연대교체가 일으킨 가혹한 진압작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앞에 설명하였듯이 12월 말에 일어난 대전 제2연대와 제주 제9연대의 전체적 교체가 경쟁을 자극하여 많은 희생을 야기하였다. 다른 시기였다면 비극이 없었을 것이라는 말을 할 수 없지만 12월의 가혹한 작전과 다랑쉬굴의 사건은 분명히 관계가 있었다.

공식적인 자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1990년대에 증언채록을 통하여 사건의 과정을 어느 정도 밝힐 수 있었다. 1992년에 종합조사를 실시한 사람들이 1948년 12월의 다랑쉬굴 사건에 대한 풍문이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

58) Hq.USAFIK.G~2 Periodic Report, No.1021, December 24, 1948.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2003, p. 301.)

다.⁵⁹⁾ 또한 증언자 2명의 증언을 중심으로 12월 18일에 토벌대의 작전으로 다량쉬굴에서 숨었던 주민들이 학살당하였다는 사실을 밝혔다. 증언자 중 1명은 구좌읍 종달리 민보단 간부 출신인 오지봉 씨였다. 오지봉 씨는 12월 18일의 군인·경찰·민 합동토벌에 참여하여 다량쉬굴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였다.

“굴밖에 있던 사람들은 사살됐고, 굴 입구가 양쪽에 두 개였는데, 나오라! 나오라! 소리쳤는데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토벌대가 처음에는 입구에 수류탄을 던졌다. 그래도 사람들이 나오지 않자, ‘검불’로 불을 피운 후 구멍을 막아 질식사하게 하였다”고 말하였다.⁶⁰⁾

다른 증언자인 채정옥 씨는 사건이 벌어진 다음 날에 동굴에 들어가 질식을 당한 주민들의 시신을 발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종달리 학교 교원이었던 채정옥 씨는 11월에 무장대에게 납치되어 다량쉬굴에서 산적이 있었다. 산사람들이 확인하러 보내준 채정옥 씨는 “굴 안에는 그때까지도 연기가 가득 차 있었으며 희생자들은 고통을 참지 못한 듯 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 죽어 있었고 코나 귀로 피가 나 있는 등 참혹한 모습이었다”고 증언하였다.⁶¹⁾ 이 증언들과 1992년 당시 합동조사 덕분에 학살의 과정에 대해 생생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다.

1992년 다량쉬굴이 발견되었을 당시에 은신처 동굴의 존재가 처음 알려지게 되었지만, 은신처에서의 생활상보다 진상규명 운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유적지의 중요성은 이차적이었다. 다량쉬굴은 4·3사건의 진상규명 운동에서 중요한 버팀목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 외에도 다량쉬굴의 사건은 다량쉬굴이 위치한 다른 마을 주민들이 피신생활을 하였던 점에서 다른 은신처 동굴보다 특이한 양상을 지닌다. 따라서 주민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마을 내의 동굴에 국한하지 않고 피신생활에 용이한 곳으로 여겨지는 동굴을 선택하여 은신생활을 하였던 것이다. 이는 4·3사건의 혼란스러운 성격처럼 마을 주민들은 아군과 적군을 잘 구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은신처로서의 중요성을 다량쉬굴은 잘 보여준다.

59) 제민일보 4·3 취재반, 『4·3은 말한다』 2권, 전예원, 1994, p. 355.

60) 제주민예총4·3문화예술제사업단, 『다량쉬굴의 슬픈 노래』, 각, 2002, p. 86.

61) 제민일보 4·3 취재반, 『4·3은 말한다』 2권, 전예원, 1994, p. 363.

3. 동광리 마을 초토화와 큰넓궤 동굴 피신생활

큰넓궤는 다랑쉬굴과 비슷한 은신처였으나 많은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 사례이다. 큰넓궤라는 동굴은 현재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에 위치하고 있다. 다랑쉬굴처럼 학살터도 아니고 조사를 통해 많은 충격을 준 4·3유적이 아니었지만 <지슬>이라는⁶²⁾ 영화에서 주요 상징이 된 동굴이다. 영화에서 나타난 동굴의 사례를 큰넓궤 사건을 바탕으로 하였다.

다랑쉬굴 사건과 다른 점들 중에 하나는 동굴로 은신한 주민들이다. 다랑쉬굴의 사례에서 마을들의 복잡한 상황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큰넓궤는 단 하나의 마을에 대한 이야기이다. 다랑쉬굴의 경우와는 달리 동광리 주민들이 큰넓궤를 발견하고 단체적으로 이 마을 주민들만 은신하게 되었다.

동광리는 당시 남제주군에 위치한 무등이왓·삼밭구석·조수궤·간장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총 140호의 중산간 마을이었다.⁶³⁾ 그러나 초토화작전 때문에 모든 마을이 소실되고 현재에 간장리의 한 마을만 남아 있다.⁶⁴⁾ 동광리도 중산간 마을이라 4·3사건에 큰 피해를 얻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동광리도 종달리처럼 초토화작전 전에 군인들의 주목을 받은 마을이었다. 동광리 주민들 중에 50여명은 1947년의 3·1 기념대회에서 참석하였지만 총과업과 검속바람, 그리고 이듬해 4·3 무장봉기의 영향을 실제로 느끼지 못하였다.⁶⁵⁾ 이것보다 1947년 8월 8일에 마을 청년들이 곡물수집을 하는 관리 3명을 폭행한 것처럼 작은 사건들이 당국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⁶⁶⁾ 그 이후로 청년들이 피신해야 하여 초토화가 시작할 무렵에 대부분 노약자들만 마을에 있었다고 한다. 또한 소개령이 제대로 내려졌는지에 대한 이견들이 있는데 1948년 11월 15일부터 여러 차례의 토벌대 습격이 시작된 것이 확실하다.⁶⁷⁾ 무장대는 1948년 4월과 11월에 1명~1명을 학살한 기록이 있는

62) <지슬>은 4·3사건을 바탕으로 한 오명 감독의 2013년에 개봉된 흑백영화이다.

63) 제민일보 4·3 취재반, 『4·3은 말한다』 5권, 전예원, 1998, p. 184.

64) 제주도, 제주4·3연구소, 『제주4·3유적 II』, 각, 2004, p. 123.

65) 제주4·3제50주년 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학민사, 1998, pp. 68~74.

66) 제민일보 4·3 취재반, 『4·3은 말한다』 2권, 전예원, 1994, p. 455.

67) 제민일보 4·3 취재반, 『4·3은 말한다』 5권, 전예원, 1998, pp. 181~182.

반면 토벌대는 11~12월에 집단학살과 마을들의 초토화를 실시하였다. 12월 12일 전날에 학살한 11명의 시신을 수습하러 온 19명을 생화장한 ‘잠복학살’의 사건도 있었다.⁶⁸⁾ 이런 가혹한 상황에서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마을 주변에 숨었다. 처음에 도너리오름⁶⁹⁾ 꽃자왈에서⁷⁰⁾ 주로 가족 단위로 작은 동굴이나 움막같은 데에 숨었다.⁷¹⁾ 동광리 주민 신원숙 씨의 증언을 살펴보면 숨어 다니는 사람들의 두려움과 당황스러운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난다.

“친척이고 뭐고 없어. 우선 자기가 살아야지. 숨어 다니다가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혹시 잡으러 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서로가 서로를 무서워하게 되었어. 낮익은 동네분이라도 만나면 ‘그간 어떻게 살아 있었구나’하는 게 인사라.”⁷²⁾

그 이후 동광리 마을 주민들은 큰넓궤가 은신하기에 용이하다고 판단하고 동굴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마을에서 사는 것처럼 동굴에서도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졌다.⁷³⁾ 동굴 자체는 위험하였지만 그 당시에 가장 안전한 은신처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큰넓궤에서도 생활하던 신원숙 씨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큰넓궤에는 그곳과 가까운 삼밭구석 사람들이 먼저 숨었는데, ‘좋은 은신처가 있다. 폭탄으로 끄떡 없다더라’는 소문이 퍼져 우리도 그곳으로 가게 됐습니다.”⁷⁴⁾

“밥은 큰넓궤에서 하지 않았어요. 근처에 작은 굴들이 많았는데 주로 거기서 며칠에 한 번씩 해서 밥을 차룽에 담았다 먹었어요. 또 물은 삼밭구석의 소 먹이는 물을 향아리로 길어다 먹었어요. 밖에 다닐 때는 발자국이 나지 않게 돌만 딛고 다니거나, 마른 고사리를 꺾어다가 벌 디뎠던 곳에 꺾어 발각되지 않게 하였죠. 똥도 밖에 나가서 누지 못하였어요. 굴 한쪽을 변소로 정해서 거기에다 변을 보도록 하였지요. 하동 사람들은 아랫굴에 살았고, 상동 사람들은 주로 윗굴에 살았어요.

68) 제주도, 제주4·3연구소, 『제주4·3유적 II』, 각, 2004, pp. 123, 125.

69) 도너리오름(굴체오름, 돛노리오름, 돌오름)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북서쪽에 위치하며 북쪽에 있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의 경계에 걸쳐진 오름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일신옵셋인쇄사, 2009.)

70) 꽃자왈은 나무와 덩굴 따위가 마구 엉켜져 수풀같이 어수선하게 된 곳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일신옵셋인쇄사, 2009.)

71) 제주4·3제50주년 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학민사, 1998, p.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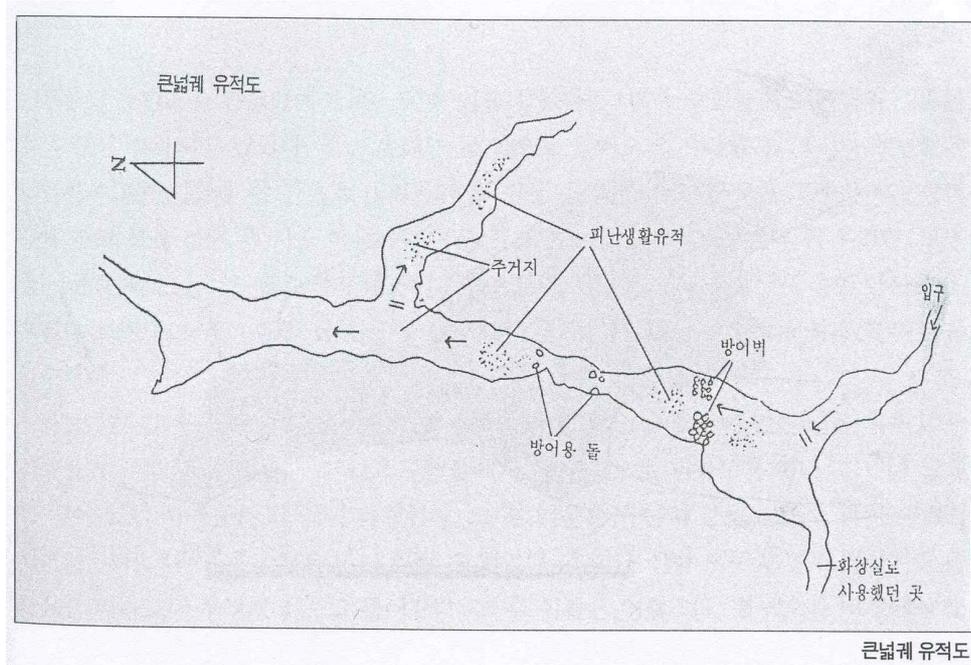
72) 제주4·3제50주년 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학민사, 1998, p. 90.

73) 제주4·3제50주년 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학민사, 1998, p. 92.

74) 제민일보 4·3 취재반, 『4·3은 말한다』 5권, 전예원, 1998, p. 185.

그러다 보니 상동 사람들은 변소가 있는 굴까지 가기 힘들어 항아리에 썼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버리곤 하였지요.”⁷⁵⁾

<그림 11> 큰넓궤 유적도⁷⁶⁾



크고 넓은 동굴이라는 뜻의 큰넓궤는 이름 그대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었다. 큰 공간인 반면 좁은 입구 이후 절벽과 위험한 바닥으로 이루어져 있어 동굴에서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11월경부터 거의 두 달 동안 큰넓궤를 동광리 주민 120여 명이 찾아갔다. 청년들이 주변 야산이나 작은 굴에서 머물러 큰넓궤는 노약자들이 많이 가는 곳이었다.⁷⁷⁾

신원숙 씨의 증언으로부터 큰넓궤의 생활상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다. 제일 주목할 만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생활을 철저히 계획한 것이다. 처음에는 “그때 생각으로는 그저 일주일이면 다 될 줄 알고”⁷⁸⁾ 믿었는데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게 된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기 생활을 재구성해야 하

75) 제주도·제주4·3연구소, 『제주4·3유적 II』, 각, 2004, p. 133.

76) 제주도·제주4·3연구소, 『제주4·3유적 II』, 각, 2004, p. 131.

77) 제주도, 제주4·3연구소, 『제주4·3유적 II』, 각, 2004, p. 133.

78) 제주4·3연구소, 『이제사 말했수다』 2 환울, 1989, p. 204.

였다. 마을 근처에서 동굴이 많이 있었기에 큰넓궤, 도엣궤 등을⁷⁹⁾ 사용하면서 장기적으로 피신할 수 있었다. 장기적인 피신이라면 은신처에서 음식도 만들고 화장실의 문제도 해결해야 하였던 것이다. 밥은 다른 근처에 있는 작은 동굴에서 만들고 주요 은신처인 큰넓궤로 가져갔다. 증언에서 물에 대한 내용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산간 마을에서는 해변마을보다 구하기가 어려워 물의 문제가 원래부터 존재하였다.⁸⁰⁾ 생존을 위해 물이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였는데 중산간 지대의 토벌이 시작하자 물 구하기 문제는 심해질 수밖에 없었다. 큰넓궤의 경우에 근처 마을 삼밭구석의 원래 사람이 먹는 물도 아닌 소 먹이는 물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화장실의 경우에 다랑쉬굴처럼 동굴 안에서 할 수밖에 없어 동굴의 한쪽을 변소로 정하였다.

또한 굴 안에서는 주민들이 지역에 따라 공간을 구분하면서 살았다고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큰넓궤는 입구를 지나고 가량 5m의 절벽에서 내려가면 첫 번째 넓은 공간이 나타난다. 절벽의 왼쪽에 화장실로 사용하였던 장소가 있고, 앞에서 충알을 막으려고 돌을 쌓은 방어벽이 있다. 이 벽을 지나면 양쪽 바닥에서 그릇 유물들이 산재해 있고, 돌이 점차 좁아지며 높이가 약 30cm 되는 통로가 된다. 이 통로를 지나면 두 번째 넓은 공간과 2층 굴로도 이어진다. 증언에 따르면 이 두 동간을 주거지로 하고 마을사람들의 위치에 따라 구별해 살았다. 이 공간이 생활터였다는 것을 남아 있는 깨진 그릇과 동물 뼈같은 유물들도 증명한다.

<그림 12> 큰넓궤의 깨진 그릇



<그림 13> 큰넓궤 안의 방어벽



79) 도엣궤는 큰넓궤에서 동쪽으로 50m에 위치하며 원래 큰넓궤와 이어진 굴이었다고 한다. 향아리같은 생활유족들이 남아 있어 신원숙 씨가 언급하였듯이 밥 준비 등으로 쓴 동굴이었을 것이다. (제주도, 제주4·3연구소, 『제주4·3유적 II』, 각, 2004, p. 134.)

80) 제주 4·3 제50주년 학술·문화사업추진위,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학민사, 1998, p. 13.

큰넓게에서 살았던 홍춘호 씨의 증언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발견할 수 있다.⁸¹⁾

“...굴 안에서만 사니까 밖이 어두운 줄도 모르고 밝은 줄도 몰라요. 밥을 해다 주시면 그곳에서 먹고 자고. 동굴에서는 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물이 항상 떨어지니까 그 물을 빨아 먹으면서 살았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밥을 해 오시면 밥을 먹으면서 살았어요...굴에서는 맨 처음에 삼밭구석 사람들만 살고, 우리 동광사람들은 안쪽에서 살았어요. 우리 안쪽으로 가면서 보니까 그땐 앉아서 가지도 못하고 기어서 가는 거예요. 몇 미터인지 모르겠지만 그 길을 넘어서 보니까 또, 높은 곳도 있고 돌맹이들도 많은 곳이 있었어요. 거기는 땅이 평평하지 않아서 사람이 살 곳이 못 되었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올라간 곳에 사다리를 놓아 그 위로 올라가 동광사람들이 살았어요... 거기서 얼마나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해 오신 밥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깥 세상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아버지에게 “우리는 한번만 하늘을 봤으면 좋겠다.”고 하였어요. “별이라도, 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하였지만 가서 수가 없었어요.”

그 때 어린이였던 홍춘호 씨는 부모님이 밖에서 만든 밥을 먹었다고 하였다. 또한 밖에서 가져온 물만 아니라 동굴 안에서 떨어지는 물도 먹었다. 신원숙 씨의 증언에서 나오다시피 동굴에서 공간을 구분하였고, 홍춘호 씨의 가족들은 동굴 안의 2층 굴로 이어지는 공간에 살았다. 그 당시 열 살이었던 소녀는 동굴 밖의 세상에 대해 몰랐다고 증언하였다. 동굴 사람들은 낮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밤이 되어서야 음식을 가지러 가고 물도 뜨러 다녔다. 즉 밤에 낮 생활을 하는 것이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밖에 위험하였기에 나갈 수 없어 밤과 낮이 구별이 안 되었다.

동광리 주민들이 이렇게 두 달이나 큰넓게에서 살았는데 결국 1949년 1월경에 토벌대가 굴 밖에서 보초를 서 있는 사람을 잡아 발견되었다.⁸²⁾ 발견에 대해 신원숙 씨가 이렇게 증언하였다.

“굴 밖에서 잡힌 한 사람은 군인들이 ‘사람이 많이 숨은 곳을 알려주면 살려주겠다’고 하자 큰넓게 앞까지 와 급히 도망쳐 들어왔습니다. 굴의 형태를 모르는 군인

81) 홍춘호, 동광리, 2016.04.30. 증언 (표준어로 표시)

82) 제주4·3제5주년 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학민사 1998, p. 94.

들이 굴 안에서 그를 잡을 순 없었지요. 굴이 발각된 사실을 알고 공포에 젖었지만 가만히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른들은 고춧가루와 이불을 태우면서 굴 입구를 향해 필사적으로 푸는체로 부쳤습니다.”⁸³⁾

동굴 사람들이 만든 연기 때문에 군인들이 들어오지 못해 굴 입구를 돌로 막고 떠났다. 떠난 후에 근처에 있는 청년들이 돌을 치워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피신할 수 있었다. 춥고 눈이 많은 겨울이었는데 피신에 대한 홍춘호 씨의 증언이 다음과 같다.

“그때에도 젊은 청년들은 동산에 올라 망보는 일을 하며 돌봐주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청년들은 동굴 안에 토벌대가 지나가면서 쌓아놓은 돌을 다 파내었어요. 다 파내고 여기 그래도 있으면 토벌대가 다시 찾아와 다칠 것이니, 아무 곳이라도 가고 싶은 곳이면 자기들끼리 가서 살라고…이제 여기 있으면 내일 날이 밝아 토벌대가 다시 돌아오면 죽을 것이니 빨리 나가라고, 자기들은 이제 모른다고 하며 보냈어요.…밤에 다 나와 보니 눈이 엄청 쌓여있었어요. 눈이 쌓여서 발이 푹푹 빠졌어요. 그때 갈 사람은 다 가버리고 없고 우리는 갈 데가 없어서 미오름 산 뒤에 사람들이 파 놓은 굴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약 5가구는 밤에 걸어서 그쪽으로 향했어요. …그 곳에서 우리가 겨울에서 봄이 될 때까지 굴속에 들어가 살았어요. 굴속에 들어가니 춥지 않았고 겨울에는 따뜻했어요. 겨울에는 그 굴속에 살다가 이제 봄이 되어 나와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살았어요.”

큰넓궤에서 나오고 다시 피신하는 게 눈이 많은 어려운 환경에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홍춘호 씨 가족은 겨울이 추웠기 때문에 또 다른 동굴을 찾고 큰넓궤에서 사는 것처럼 피신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동굴에서 살다가 초토화작전의 가혹한 시기가 끝나고 상황이 완화된 후에야 하산할 수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홍춘호 씨의 가족은 잡히지 않고 다른 동굴에서 숨어 살 수 있어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다. 큰넓궤에서 나오고 피신 중인 많은 주민들이 영실 인근 불레오름에서⁸⁴⁾ 토벌대에게 잡혔고 잡힌 사람들이 바로 현지에서 총살됐거나 서귀포로

83) 제민일보 4·3 취재반, 『4·3은 말한다』 5권, 전예원, 1998, p. 185.

84) 불레오름(불래산)은 서귀포시 하원동 북쪽 국립공원의 영실 서쪽에 있는 1374m 오름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일신옵셋인쇄사, 2009)

끌려갔다.⁸⁵⁾ 끌려간 주민들의 대부분 1월 22일에 정방폭포 근처의 대학살에서 희생되었다.⁸⁶⁾ 정방폭포 근처에서는 이 날 외에도 주민들을 총살하는 여러 차례의 사건이 있었다. 나중에, 적어도 1년 후에 수습하러 간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을 찾지 못하였을 정도로 많은 시신, 유해들이 있었다.⁸⁷⁾

큰넓궤는 학살의 장소가 아니라 <지슬> 영화의 영향으로 동굴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은신처 동굴의 좋은 사례이다. 토벌대를 성공적으로 피할 수 있었던 큰넓궤 주민들의 생활상에 더욱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량취굴과 선흘리 동굴들이 희생터로 기억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동광리 주민들도 붙잡혔기 때문에 다른 두 마을과 유사하게 동굴이라는 은신 공간은 동광리 주민들한테도 아픈 기억일 수밖에 없다.

4. 선흘리 마을 동굴 피신생활

선흘리는 조천읍에 위치하는 중산간 마을이다. 1948년 당시 선흘 1,2,3구로 편성된 상대적 큰 마을이었는데 4·3사건 이후 마을 2군대를 제외하고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흘리는 무장대의 영향이 강한 마을이라 토벌대의 주목을 받았으며 소개령 이전부터 주민 학살이 실행되었던 곳이다.⁸⁸⁾ 10월 31일에 주민 8명이 토벌대에게 총살되어 청년들이 피신하게 되면서 마을에는 대부분 노약자들만 남았다. 그러나 11월 18일에 피신한 사람들을 위해 밤늦게까지 음식을 준비하는 5명을 학살하고 그들의 집을 불태운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 이후로 청년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남녀노소 피신하게 된다. 그러므로 며칠 후 21일에 토벌대가 마을에 들어갔을 때에는 주민들이 없는 텅 빈 마을만 초토화되었다.⁸⁹⁾ 21일에 소개령이 내려지자 주민들의 일부는 함덕, 조천 해변마을로 이동하였으나 많은 사람들 마을 근처로 피신하였다.⁹⁰⁾ 그러나 23일에 소개민 수용소에서 선흘리 여성 5

85) 제주도, 제주4·3연구소, 『제주4·3유적 II』, 각, 2004, p. 133~134.

86) 제민일보 4·3 취재반, 『4·3은 말한다』 5권, 전예원, 1998, p. 186.

87) 제민일보 4·3 취재반, 『4·3은 말한다』 5권, 전예원, 1998, p. 187.

88) 제주도·제주4·3연구소, 『제주4·3유적 I』, 각, 2003, p. 415.

89) 제민일보 4·3 취재반, 『4·3은 말한다』 4권, 전예원, 1997, p. 413.

90) 제주도·제주4·3연구소, 『제주4·3유적 I』, 각, 2003, p. 430.

명이 함덕리에서 총살된 것을 계기로 안전하게 소개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⁹¹⁾ 선흘리 토벌 때의 상황에 대해 김형조 씨가(1922년생, 2004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그 다음은 음력 21일 날 내려오라고 하면서 시범적으로 그것을⁹²⁾ 보니까 안내려갈 수가 없어. 경 안 허민 다 쏘운다 시범적으로 한 거라. 소도 있고, 말도 있고, 곡식들도 밭에 무룩무룩 데며 놔서 있고 현디. 놀도 놀어 놓고, 돼지, 말들 다 집에 있는데 갈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욕심에서 게르로사 소야 살릴 테주. 우리는 가만히 집에 있으면 죽을 거고 선흘곶을 둔자, 오라가민 둔자, 오라가민 선흘곶으로 돌아놔주게.⁹³⁾

이 증언에서 토벌을 경험하여 방황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잘 그려진다. 원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남아 있는 재산까지 포기해야 하였는데 이것은 재산을 지키려는 의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식량의 불확실함을 가져왔으므로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다. 중산간 마을 사람들이 집을 떠나는 것은 생계의 기반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이다.⁹⁴⁾ 그러나 중산간에 위치한 집이 안전하지 않았기에 재산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 상황에서 해변마을로 이동하는 것보다 가까운 숲으로 은신하면 나중에 집에 돌아가는 것이 더 쉽다고 주민들이 생각하였을 것이다.

증언에서도 나오다시피 선흘리에서 피신하기에 좋은 선흘곶이라는 데가 있었다. 선흘곶은 ‘수십만 평의 동백나무 숲’⁹⁵⁾인데 여러 가지 자연동굴도 위치하므로 토벌대에게 발각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오래 은신할 수 있는 곳이다. 현재에 은신처, 또는 은신처 및 희생터로 인정된 유적지는 대섭이굴과 도톨굴(반못굴), 목시물굴, 뽕뽕디굴이다. 이 중에서 대섭이굴은 넓은 입구를 가지며 일시적인 은신처로만 사용하게 되어 초토화작전에 희생이 없었던 굴이다. 그러나 다른 세 군데에서 토벌대가 발견하였을 때 많은 주민들이 숨어 있었기에 희생이 많이 발생하였다.

91) 제민일보 4·3 취재반, 『4·3은 말한다』 4권, 전예원, 1997, p. 483.

92) 마을의 방화와 주민 학살

93) 제주4·3연구소, 『산에서도 무섭고 아래서도 무섭고 그냥 살려고만』 제주4·3 구술자료 총서 03, 한울, 2011, p. 283.

94) 제주4·3제50주년 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학민사 1998, p. 16.

95) 제민일보 4·3 취재반, 『4·3은 말한다』 4권, 전예원, 1997, p. 413.

<그림 14> 선흘리 은신처 동굴 위치



- 1. 도틀굴 3. 대섭이굴
- 2. 목시물굴 4. 뽕뽕디굴

4개 동굴 중에서 도틀굴, 목시물굴과 대섭이굴이 마을과 서로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데, 마지막 뽕뽕디굴만 그들보다 남쪽으로 3~4km에 있다. 동굴 3개는 선흘1리에 있는 선흘곶 동백동산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동백동산은 생물 다양성이 높은 상록수림이자 지하수 함양률이 높고 암반 위에 습지가 형성된 산림습지이다. 2011년에 제주도에서 특이하게 람사르습지로 지정되기도 하였다.⁹⁶⁾ 동굴들이 위치하는 지대는 습지라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앞에 언급하였듯이 은신하는 동안 물이 중요하였고, 물의 구하기 문제는 지속하였다. 그러나 습지인 지대에서 물이 많고 더 쉽게 구할 수 있었기에 다른 지대보다 은신하기에 좋은 조건들이 있었다.

도틀굴은 반못이라는 데에서 50m 정도로 위치하여 반못굴이라 부르기도 한다. 좁은 입구를 지나면 안이 넓고 높이가 높은 동굴이 그려지며, 여러 개의 지굴과 2~3층으로도 서로 이어져 복잡한 미로굴임을 알 수 있다.⁹⁷⁾ 도틀굴은 마을과 가장 가까운 동굴이라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로 청년들이 숨었던 동굴이

96) 람사르 협약은 1975년에 발효된 습지의 보전과 이용에 대한 국제 조약이다.
(<http://www.ramsar.org/>)

97) 제주도 · 제주4 · 3연구소, 『제주4 · 3유적 I.』, 각, 2003, p. 432.

었다.⁹⁸⁾ 세 동굴 중에서 가장 많은 선흘리 주민들이 은신하였던 목시물굴은 도톨굴보다 작지만 비슷한 형태 때문에 생활하기에 다소 위험한 동굴이다. 그러나 목시물굴은 도톨굴과 달리 넓은 서쪽 입구와 좁은 동쪽입구로도 들어갈 수 있었다. 동굴 안은 낮지만 넓은 생활터에서 바닥을 평평하게 만든 후에 2백여 명이 같이 살았다고 한다.⁹⁹⁾ 동굴 안에서 주민들이 사용하였던 그릇·숟가락·고무신 등의 생활용품과 서쪽 입구의 근처에서 주민들이 생활하였던 움막터의 흔적도 그대로 남아 있다. 움막터 남아 있는 것은 동굴 안에서만 아니라 동시에 밖에서도 살았다고 증명한다. 벤뱅디굴¹⁰⁰⁾은 옷밤오름¹⁰¹⁾의 동남쪽에 위치하며 토벌 당시 주로 선흘2구의 주민들이 은신하였다. 목시물굴과 벤뱅디굴도 갔다 온 김형조 씨의 증언에 따르면 숨은 주민들이 인근 동굴의 ‘올란드물’이라는 물을 식수로 하였고 동굴 근처에 움막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였다.¹⁰²⁾ 또한 벤뱅디굴에서 살았던 장두일 씨가(1932년생, 2004년) “사실 거긴 우리대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산사람들이 사람들을 거기 담아 놓고 경비를 하였죠.”라고 증언하였기에 선흘리에서 피신하게 된 사람들도 무장대와의 접촉을 피할 수 없었다.¹⁰³⁾

선흘리 주민들이 이렇게 선흘곶 동굴과 움막을 짓고 숲 속으로 11월 18일 이후로 피신하였지만 토벌대의 작전으로 발견되며 벌써 초토화 시기 초기에 선흘리 주민들의 큰 희생이 발생하였다. 11월 25일에 먼저 20여 명이¹⁰⁴⁾ 은신하였던 도톨굴이 발각되었다. 발각된 주민들 중에 15여 명이 바로 그날 동굴 근처에서 총살되었다. 나머지는 토벌대들이 대동하여 다른 은신처를 찾기 위해 함덕으로 끌려가거나 고문당하기도 하였다.¹⁰⁵⁾ 이로 인해 이튿날 26일에 대부분의 주민들

98) 제주4·3연구소, 『4·3유적지 현장답사 자료집』, 2008. p. 43.

99) 제주4·3연구소, 『평화와 인권의 성지, 제주도』 제주도, 2006, pp. 42, 44.

100) 다른 데에서 벤뱅디굴, 벤뱅디굴, 뱅디굴이라고 표시하기도 하는데 『제주4·3유적 I』의 벤뱅디굴 명칭을 사용한다.

101) 옷밤오름(옷바매기)는 선흘리 남쪽에 위치하는 417m 오름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일신옵셋인쇄사, 2009.)

102) 제주도·제주4·3연구소, 『제주4·3유적 I』, 각, 2003, p. 437.

103) 제주4·3연구소, 『지금까지 살아진 것이 용헌거라』 제주4·3 구술자료 총서04, 한울, 2011, p. 207.

104) 『제주4·3유적1』은 25여 명을 언급하지만 『4·3은 말한다』 4권에서 16명이라고 한다.

105) 제주도·제주4·3연구소, 『제주4·3유적 I』, 각, 2003, p. 414.

이 숨었던 목시물굴도 발각되었다. 당시 목시물굴에 숨었다가 토벌대에게 잡힌 조명옥 씨가 이렇게 증언하였다.

“마을이 불태워지자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어린 아들 둘과 함께 선흘곶 속에 있는 목시물굴에 숨었다가 잡혔어요. 군인들은 대부분을 굴 입구에서 죽이고 아기엄은 여자 등 일부는 따로 분리해 함덕으로 끌고 갔지요. 난 두 살 난 아들을 업고 있어서 학살극을 모면하였습니다. 일곱 살 난 아들을 급히 ‘빌려 업은’ 김형조씨 부인도 구사일생하였습니다.”¹⁰⁶⁾

토벌대에 붙잡힌 사람들 중에서 40여 명은 주로 20대 남자들로 현장에서 총살당하였고 그들의 시신은 휘발유로 불태워졌다.¹⁰⁷⁾ 그 과정에서 다행히 살아남은 사람들은 함덕 대대본부로 끌려가서 고문을 받고 또 다른 은신처인 대접이굴과 벤벵디굴에 대해서 알려줄 수밖에 없었다.¹⁰⁸⁾ 그러므로 27일의 발각으로 벤벵디굴에서 선흘2구 사람들 중에서 6명 이상 희생되었다. 선흘리에서 함덕으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28일에 북촌리 역물에서¹⁰⁹⁾ 총살된 사람도 있었다.¹¹⁰⁾ 또한 살아남은 여성들 중에서 26명은 다음달 12월 26일에 학살당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¹¹¹⁾

이렇게 희생된 사람들이 많았는데 동굴에서 동굴로 이동하여 살아남고 잡히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다. 다음은 구사일생한 고씨의 증언이다.

“난 목시물굴에 숨어 있었는데 반못굴에 있던 사람들이 희생되자 이튿날 몇몇이 모여 시신을 수습키 위해 나섰습니다. 반못굴로 향하던 중 갑자기 박격포 소리가 요란하게 났습니다. 모두들 겁에 질려 다시 목시물굴로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난 잠시 명

106) 제민일보 4·3 취재반, 『4·3은 말한다』 4권, 전예원, 1997, p. 414.

107) 제주4·3연구소, 『평화와 인권의 성지, 제주도』 제주도, 2006, p. 41.

108) 제주도·제주4·3연구소, 『제주4·3유적 I』, 각, 2003, p. 434.

109) 역물은 조천읍 북촌리에 있는 4·3 희생터이다. 북촌리의 역수동을 칭하며 북촌리와 선흘리의 경계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밭이다. 11월 28일에 목시물굴과 다른 데에서 잡았던 주민 100여명을 역물에서 총살하였다. (제주도·제주4·3연구소, 『제주4·3유적 I』, 각, 2003, p. 374.)

110) 제민일보 4·3 취재반, 『4·3은 말한다』 4권, 전예원, 1997, p. 415.

111) 제주도, 제주4·3연구소, 『제주4·3유적 종합정비 및 유해발굴 기본 계획』 2005, p. 167.

하게 서 있다가 더 위쪽을 향해 뛰었습니다. 옷밤오름 부근까지 올라가 뱅뱅디굴에 숨었습니다만 다음날 뱅뱅디굴도 발각됐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맞서 싸우자며 굴 안에 방호벽을 쌓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굴 안으로 바람이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그곳을 열심히 봤더니 굴밖으로 구멍이 뚫렸어요. 밖으로 나오자 군인들이 기관총을 난사하였습니다. 난 ‘노랑개다!’¹¹²⁾고 외치며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결국 그 굴에서 5명은 탈출에 성공하였지만 나머지는 희생됐습니다.”¹¹³⁾

그의 증언에서 동굴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특별 당시 주민들의 정신을 알 수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주목할 만한 것 중에서 하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수습하러 갔던 것이다. 그런 혼란스럽고 위험한 상황에서 시신 찾으러 갔던 것은 죽은 사람들을 제대로, 편안히 보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하였는지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끝까지 싸우자는 말과 정신없이 뛰었다는 사실을 보면 그 시기의 혼란스러운 성격이 사람들의 정신에서도 나타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은커녕 다른 사람의 행동도 추측할 수 없었다. 그리고 동굴에서 살아야 한다는 현실은 이런 정신을 악화시켰을 수도 있었다. 동굴과 아무리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도 현대 사람들은 보통 동굴에서 오래 머물지 않기 때문에 낯선 생활터였다. 고씨처럼 동굴에 있다가 발견된 사람들은 두려움과 간혀 있는 듯한 느낌을 느꼈을 것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증언들에 따라 목시물굴에서 특별대가 왔을 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는 아기의 입을 막자 아기가 죽었다는 기록이 있어 그 시기의 가혹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¹¹⁴⁾

선흘리 마을의 동굴들은 초토화 초기에 일시적으로 은신하고 특별 때문에 일찍 발견되면서 한 마을의 비극을 일으킨 사례이다. 다른 마을들과 달리 그 지역의 화산활동으로 인해 동굴들이 많아 4개 은신처 동굴이 유적으로 삼는 것이 선흘리의 특징이다. 그러나 동굴들의 자체에 대한 인식이 은신처보다 학살터의 이미지가 강하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112) 특별대 복장 색깔에 빗대어 군인을 ‘노랑개’, 경찰을 ‘검은개’ 라고 불렀다.(제민일보 4·3 취재반, 『4·3은 말한다』 4권, 전예원, 1997, p. 416.

113) 제민일보 4·3 취재반, 『4·3은 말한다』 4권, 전예원, 1997, pp. 415~416.

114) 제주4·3연구소, 『4·3유적지 현장답사 자료집』, 2008, p. 44.

IV. 제주4·3사건 은신처 동굴과 기억의 공간

본 논문에서 다루는 3개 마을의 동굴들은 4·3사건의 주요 유적지이자 사건의 상징이 된 사례들이다. 이 장에서는 4·3사건의 역사적 상징화에서 은신처 동굴의 이미지가 어떻게 출현되었고,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4·3 운동과 4·3사건에 대한 연구에서 동굴의 역할이 무엇이었고, 현재 기억의 공간으로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1. 제주4·3유적과 은신처 동굴

4·3사건은 오랫동안 침묵의 역사였지만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제주지역 주민들과 사회단체들로 인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런 노력으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1999년 12월에 용인하고 2000년 1월에 공포되었다. 특별법으로 인해 사건 자체와 희생자들의 진상규명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4·3사건은 역사적 상징화를 겪게 되고 공식적인 역사 사건으로 인정받았다.

역사적 상징화의 한 바탕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활동이었다. 위원회는 2000년 8월에 출범한 후 사건의 발발배경, 전개과정, 피해상황 등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2년 6개월 동안 조사하였다. 그 조사의 결과로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2003년에 발간하였다. 또한 2003년 10월 31일에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 발표문을 내고 사건의 역사적 상징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하였다. 정부의 이런 경제적 지원, 또한 주민들을 희생자로 인정해준 결과로 4·3사건의 기념일이 만들어지고 기념공간이 마련되었다.

실제로 4·3희생자 추념일은 2014년에만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는데, 이미 2003년부터 매년 4월 3일에 4·3위령제를 열고 있었다. 2016년의 위령제를 바탕으로 추념식의 내용은 사건의 희생자들을 기념하는 국민의례·헌화 및 분향·경과보고·추념사·추모시이다. 이 주요 행사 외에도 매년에 주로 3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예술적 행사나 전시회, 지역적 위령제 등 프로그램들이 있다.¹¹⁵⁾

그 다양한 행사 중에서 올해는 2012년에 제작된 <지슬> 영화 상영을 비롯한 전시회도 있었다. 영화 <지슬>과 그의 상징인 큰넓개 동굴을 통해 주민들의 피신 생활은 행사의 일부라는 것은 중요하다.

2003년의 첫 위령제는 제주4·3평화공원의 기공식이 되었다. 그 당시 위령제단과 위령탑 등이 지어졌으며 평화공원의 1차적 목적은 희생자를 위령하는 것이었다. 그 이후 평화공원이 확대되면서 2008년에 4·3평화기념관이 설립되었다. 기념관은 사건의 전개과정을 방문객들에게 소개하여 사건의 종합적인 이해를 위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평화재단과 4·3연구소와 더불어 기관들을 설립한 것 외에는 유해발굴 사업과 유적지복원을 주요 활동의 하나로 삼았다. 4·3사건의 희생자들을 위한 사업의 결과로 이 논문의 대상인 은신처 동굴들도 발굴되고 조사되었다. 다른 유적지와 마찬가지로 은신처 동굴들도 4·3사건이 이런 역사적 상징화의 과정에서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위령을 위해 활용되고, 상징성을 갖게 되었다.

유적은 과거의 흔적을 통해 기억을 부활하는 것임으로 4·3유적은 제주사람의 집합기억을 복원·유지·보존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¹¹⁵⁾ 유적은 어떤 사건의 이해하기에 큰 도움이 되는 장소나 시설물이다. 또한 유적으로 인해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면서 책이나 박물관에서 보는 것과 달리 실제 경험이 되어 사건의 다른 모습을, 실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문헌자료의 중요성도 부정할 수 없지만 유적을 직접 접근하게 되는 것은 특별한 가치가 있다. 또한 유적은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나 시설물에 있는 흔적인데 현재에 중요성을 인식해야 그의 의미와 가치가 발휘한다. 그런 가치를 발휘하려면 조사, 보존과 기념이 실행해야 한다.

은신처 동굴이나 다른 4·3 유적들의 조사는 실제로 4·3연구소의 주요 활동을 통해 이루어졌다. 유적의 일부를 조사하고 책자나 해마다 열린 역사문화기행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리는 작업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모든 지역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조사는 현재까지 실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리고 유적들의 방치와 훼손은 오늘날까지도 방지할 수 없는

115) 2016년 4·3 행사 관련 부록 참고.

116) 제주도·제주4·3연구소, 『제주4·3유적 종합정비 및 유해발굴 기본 계획』 2005, p. 32.

상황이다. 4·3운동은 주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집중해 왔기 때문에 유적들은 그것에 비해서 중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¹¹⁷⁾

2000년대에 들어서야 전반적인 유적 조사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4·3연구소와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가 4·3유적조사반을 만들어 2002년부터 2차례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주도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02년 12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제주시, 2003년 9월부터 12월까지 서귀포시의 마을들을 조사하였다.¹¹⁸⁾ 그러나 시간과 인원, 예산의 부족으로 제주도 마을 중에서 유적이 적은 마을들을 제외되고 120개 마을만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 120개 마을의 596개 유적을 포함한 『제주4·3유적』의 1·2권을 2003년과 2004년에 출판하였다.¹¹⁹⁾

<표 3> 2005년에 선정된 17개 중요유적¹²⁰⁾

제주시	북제주군	서귀포시	남제주군
곤을동	낙선동4·3성	시오름 주둔소	큰넓궤
주정공장터	다랑쉬굴	녹하지오름 주둔소	섯알오름 일본군 탄약고터
관덕정 앞 광장	목시물굴과 그 인근 은신처		수악 주둔소
관음사 주둔소	북촌 너분송이 일대 희생터		한수기곶 무장대 은신처
오라리 방화사건 현장	진동산 뒷골장성		
	이덕구 산전		

4·3유적은 주로 희생자를 추모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도구이기에 대부분 가장 많은 희생을 야기한 초토화작전 시기의 사건들과 관련이 있다.¹²¹⁾ 많은 유적들은 초토화작전 시기의 민간인 피해와 희생을 기억하고 있는데 은신처 동굴들도 그

117) 제주도·제주4·3연구소, 『제주4·3유적 I』, 각, 2003, pp. 9~10.

118) 4·3연구소는 같은 결과를 다른 자료에서 발표하였을 때 연구팀이 2003~2004년에 연구를 이뤘다고 하였다. (제주도, 제주4·3연구소, 2005, 『제주4·3유적 종합정비 및 유해발굴 기본 계획』, 제주4·3연구소, 『4·3유적지 현장답사 자료집』, 2008.)

119) 제주도·제주4·3연구소, 『제주4·3유적 I』, 각 2003, pp. 10~14.

120) 제주4·3연구소, 『제주4·3유적 종합 기본 계획 (안)』 2005.

121) 제주도·제주4·3연구소, 『제주4·3유적 종합정비 및 유해발굴 기본 계획』 2005, pp. 33, 35.

런 유적 중 하나이다. 4·3유적은 4·3사건과 관련 있는 잃어버린 마을, 성, 은신처, 희생터, 민간인 수용소, 주둔지, 희생자 집단묘지, 비석, 역사현장과 기타의 10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졌다. 조사의 결과로 이에 596개 유적을 분류하였는데 그 중에서 20여개를 선택하고 중요유적으로 강조하게 되었다. 중요유적을 역사성, 보존성, 유형별 대표성, 대중성, 접근성과 부지매입 용이성의 6개 평가과목에 따라 선정하였다. 은신처 동굴 중에서 이 논문의 대상인 다량쉬굴, 큰넓개, 그리고 목시물굴과 그 인근 은신처들이 선정되었다.

은신처 동굴 등 유적들의 조사와 보존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3연구소의 『제주4·3유적 종합정비 및 유해발굴 기본 계획』을 살펴보면 유적의 보존이 철저히 계획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계획은 현재까지 계획뿐인 부분이 많고 유적의 보존은 그 계획이 나온 2005년과 비슷한 상태이다. 다음 절에서 살펴볼 동굴들이 사건의 상징이 되어 현대적 활용으로 인해 보존이 잘 돼 있는 사례들이다. 그러나 제주도에 이 동굴들 외에도 은신처 동굴이나 다른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그들의 보존이 애매하다. 보존에 대한 계획이나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로 재정적 문제와 자연 보존의 어려움 때문이다. 주둔지나 성, 묘지, 비석 같은 유적들도 있지만 동굴 같은 자연물들도 유적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물을 역사적 상징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보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자연을 보존하는 것은 인간과 접촉을 최대한 피하는 방법으로 보통 이루어지는데 그의 역사적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인간과의 접촉을 피할 수는 없다. 보존과 활용의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려면 타협이 이루어져야 될 수밖에 없다.

2. 기억의 공간으로서 은신처 동굴의 활용

유적 보존에 이런 모순과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은신처 동굴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은신처 동굴은 4·3사건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유지하기 때문에 그의 활용이 중요하다. 동굴은 충돌사건이 발생한 장소로 기억하기보다는 4·3사건의 일상생활 모습을 상징한다. 동굴의 현장에서 이념을 배제하고 양민학살에 초점을 맞추는 4·3운동의 방향이 그것을 말한다. 대량학살의 상

징과 더불어 제주도 사람들이 진상규명 운동에서 자기의 입장과 경험자들의 사건에 대한 집합 기억을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은 동굴의 상징화에서 찾을 수 있다. 제주도가 중앙정부에서 멀리 위치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면서 오래전부터 정부와의 대립이 발생하곤 하였다. 실제로 동굴이 상징이 된 것은 제주도의 이런 한국의 다른 지역과의 차이를 보이는 지리적·사회적 특징 때문이다. 제주도민들의 강한 자각의식 때문에 4·3사건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졌고,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에 반대하여 대항기억을¹²²⁾ 형성시켰다. 이런 과정에서 제주도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를 인정받으려고 동굴이 상징으로 쓰게 된 것이다. 이것은 주로 두 개의 동굴, 다랑쉬굴과 큰넓궤를 통해 이루어졌다. 다랑쉬굴의 1992년 발견과 큰넓궤를 바탕으로 한 영화 <지슬>의 등장으로 은신처 동굴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4·3사건의 대표적인 상징 유적으로 알려졌다.

1) 다랑쉬굴의 출현

은신처 동굴 중에서 다랑쉬굴이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4·3사건을 널리 알리게 된 계기가 되었다.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다. 다랑쉬굴은 1991년에 처음 발견되고 1992년에 공개된 후부터 4·3사건 연구의 중요한 결과물이 되었다. 제주대학교 박물관장 이청규 교수는 “그동안 말로만 듣던 4·3의 수난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였다.¹²³⁾ 다랑쉬굴의 발견은 그때까지 제주도민들만 알고 있었던 4·3사건의 진실에 대해 전국적으로 널리 밝히는 시도였다. 1991년 12월 22일에 증언채록을 실시하고 있었던 제주4·3연구소 팀은 동굴을 발견하고 4차례의 조사를¹²⁴⁾ 실행한 후 4월 2일에 보도하였다.¹²⁵⁾ 아직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설립되지 않고 진상조사보고서도 마련되지 않았던 당시에 다랑쉬굴의 발견은 4·3사건의 ‘총체적 모순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였다.¹²⁶⁾

122) 대항기억은 푸크(Foucault, 1977)에 의해 처음 논의된 개념으로 국가나 지배집단에 의한 공식 기억이나 공식역사와 다른 기억을 의미한다. 제주도에서 1987년 이후 민주화운동은 공식역사와 다른 그동안 억압된 4·3의 기억들을 언론, 연구소, 문학, 마당극, 미술,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떠오르게 하였다. (권귀숙, 『4·3의 대항기억과 영상』, 『제주도연구』 Vol.24, 2003.)

123) 제민일보 4·3 취재반, 『4·3은 말한다』 2권, 전예원, 1994, p. 355.

124) 1991년 12월 24일, 1992년 3월 22일, 29일, 4월 1일

125) 제주민예총4·3문화예술제사업단, 『다랑쉬굴의 슬픈 노래』, 각, 2002 pp. 12~13.

1992년 4월 2일에 공개된 한 달 후 동굴에서 학살당한 사람들의 장례식을 실행하였다. 처음에는 시신들이 드디어 한을 풀다면서 매장을 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월 15일에 화장한 후에 남은 뺏가루를 김녕리 앞바다에 뿌렸다.¹²⁷⁾ “언제 어디서 돌아가신 줄도 모르다가 44년 만에 기적적으로 찾게 된 조상의 유골인데 이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외부의 압력이 없었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당시 기사에서 나온 말이다.¹²⁸⁾ 사건의 이런 결말은 아직 4·3사건에 대한 혼란과 애매한 성격이 해결되지 못한 시기였다고 판단된다. 1992년에 앞서 1980년대에 이미 민주화운동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랑쉬굴의 사건을 시신들의 화장과 동굴 입구를 콘크리트로 봉쇄한 것으로 급하게 해결한 것이었다. 1992년, 그 때는 아직 진상을 전적으로 들어낼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다.

그 이후로 여러 지역적인 노력으로 인해 다랑쉬굴의 비극을 알려주려고 하였다. 당시 신문기사나 방송에서 다랑쉬굴의 사건은 큰 충격을 주었던 뉴스였다. 신문기사·방송의 다음 단계로 영상콘텐츠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4·3운동 과정에서 영상 또는 영화들이 만들어졌으며 그들로 인해 4·3사건의 진상, 또는 제주도 사람들의 관점에서 사건을 소개하려는 사례가 많다. 현재 사람들이 많이 즐기고 그들의 삶과 사고방식에 많은 영향을 주는 대중문화 중 하나는 영화이기 때문이다. 대중문화이면서도 일반사람들이 영화를 즐기면서 그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데다가 영화를 만든 사람은 성공하면 자기 의견이나 말하고자 하는 것을 대중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도구이다.

20세기 말부터 진상규명 운동을 하다가 4·3사건에 대한 영상이 많이 생겼다. 1989년의 첫 작품부터 MBC, KBS 등 주로 TV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 방식인 독립영화나 2000년대부터 장편 극영화도 생산되었다. 다랑쉬굴의 사건으로 은신처 동굴이 처음으로 영상콘텐츠에서 나타났는데 주로 1990년대의 TV 다큐멘터리들에서 다랑쉬굴과 다른 동굴들에 대한 증언하는 주민들이 출현하였다. TV 다큐멘터리 외에도 <다랑쉬의 슬픈 노래>나 <레드 헌트>같은 독립 다큐멘터리들

126) 제주민예총4·3문화예술제사업단, 『다랑쉬굴의 슬픈 노래』, 각, p. 10.

127) 제민일보 4·3 취재반, 『4·3은 말한다』 2권, 전예원, 1994, p. 371.

128) 『제민일보』 1992년 5월 16일, 제민일보 4·3 취재반, 『4·3은 말한다』 2권, 전예원, 1994, p. 372.

의 주요 상징으로도 동굴이 나타났다. 이런 TV나 독립 다큐멘터리들에서도 동굴은 제주도사람들의 수난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으로 나타나는데, 은신처인 동굴의 생활터와 피신생활 자체와 당국의 강력한 억압을 동시에 보여주려고 하였다.

2002년 4월 5일에 제주도민예총은 발견의 10년을 맞아 ‘해원상생굿’을 마련하고 동굴의 입구에서 표석을 세웠다. 그러나 입구가 차단되어 있기에 현장을 방문해도 다랑쉬굴의 내부에 들어갈 수 없었다. 동굴은 현재까지도 봉쇄돼 있어 표시가 없으면 찾기까지 힘든 유적이다. 다랑쉬오름과 아끈다랑쉬오름의 두 오름 사이에 잃어버린 마을의 표시와 다랑쉬굴의 유적지가 있다. 유적지와 그의 주변은 현재에 중산간 지대의 평범한 공간이다. 거기에서 4·3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동굴의 표시와 다랑쉬마을의 표시밖에 없는 자연 그대로이다.

<그림 15> 다랑쉬굴 현황



2000년대에 사건이 인정받았으며 그의 상징이 된 다랑쉬굴은 2008년에 개관한 제주4·3평화기념관에서 찾을 수 있었다. “기념관은 동굴에서 시작해 동굴로 끝난다.”¹²⁹⁾ 지하로 가는 전시장의 입구는 동굴의 입구로 만들어졌으며 마치 당시

129) 오승국, 『4·3평화기념관 및 유적지 탐사』, 『4·3역사문화 교육프로그램』 제주4·3연구소, 2010

주민들처럼 동굴로 들어가 동굴이 상징하는 공포감을 입구에서부터 느끼게 한다. 또한 전시 끝에 1992년에 발견된 다랑쉬굴의 재현이 발견 당시 그대로 전시되어 있다. 발견한 후에 입구가 봉쇄된 다랑쉬굴 안의 현장을 직접 찾아갈 수 없어 재현으로라도 경험하도록 마련하였다. 다랑쉬굴은 4·3운동에서 중요한 주제인 피난민의 처절함을 유지시키는 유적으로서 기념관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다랑쉬굴의 재현은 아주 생생하게 시신들과 유물들을 전시되어 있어 ‘다랑쉬굴의 비극’을 관광객들에게 잘 전달해준다.

<그림 16> 다랑쉬굴 재현 1



<그림 17> 다랑쉬굴 재현 2



다랑쉬굴은 4·3사건의 전체 과정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사건 당시 주민들의 피신생활과 토벌대에게 학살된 것, 사건 후에 주민들이 알면서도 그에 대해 침묵해야 하였던 것, 1992년의 발견으로 진상규명 운동의 일부가 된 것이다. 그러나 또 한 번 정부의 억압을 당하였던 것, 그리고 결국 4·3사건이 인정을 받아 다랑쉬굴의 재현으로 공식적인 상징이 된 것이다. 이 단 하나 동굴의 사례에서 사건 자체부터 침묵을 통해 공식화되기까지 4·3사건의 전체를 발견할 수 있다.

다랑쉬굴은 이런 전체적 상징으로서 현재 역사교육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기억, 너머>라는 4·3평화인권교육 동영상을 만들었다. 15분 정도의 영상교육자료에서는 대부분 다랑쉬굴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상은 다랑쉬굴 이야기로 시작하고 4·3사건을 설명하면서 다시 동굴로 돌아가고 끝이 난다. 이 영상을 통해 다랑쉬굴의 발견은 4·3사건 연구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영상의 제목에 나오는 대로 영상의 목적은 4·3사건을 기억하게 만드는 데에 있다. 4·3사건을 기억하게 만드는 공간은 바로 동굴이며 다랑쉬굴은 영상 구조의

들을 마련하고 있다. 영상은 1992년 4월에 기억해야 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는 사실로 시작한다. 다랑쉬굴의 1948년의 학살사건이 아니라 1992년의 발견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영상은 다랑쉬굴의 원래 사건보다 발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랑쉬굴이 1992년에 4·3사건의 재구성을 널리 알리는 첫 단계로 나타났던 것처럼 영상은 다랑쉬굴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다랑쉬굴 같은 은신처 동굴로부터 4·3사건 자체를 설명해주고 있다. 3·1절 기념대회를 바탕으로 하여 4·3사건의 정의는 내려지고 있다. 다시 다랑쉬굴로 돌아가자 그의 발견 상황뿐만 아니라 동굴을 다시 열리는 장면이 있다. 동굴이 봉쇄된 후에 아무도 다랑쉬굴로 들어갈 수 없어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하다. 다랑쉬굴의 유물들이 정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큰넓케와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분위기이다. 큰넓케도 유물들을 보관하고 있지만 다랑쉬굴은 그동안 봉쇄되어 있었기에 당시 생활상을 더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랑쉬굴의 발굴 이후 진실규명 운동이 이루어졌고 진실이 밝혀졌지만 4·3사건은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강조되고 있다. 다랑쉬굴처럼 밝혀지지 못했던 사건들이 있고 유족들에게 여전히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영상에는 4·3사건과 은신처 동굴 사건에서의 역할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상징과 요소들이 있다. 첫째는 다랑쉬굴 자체이다. 영상이 시작할 때 발견된 다랑쉬굴은 거대한 타임캡슐에 비유하고 있다. 타임캡슐은 미래 세대들에게 과거를 교육하는 도구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맞는 비유이다. 44년 동안 흠에 묻어져 있던 다랑쉬굴은 4·3사건의 상황을 타임캡슐처럼 그대로 보관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주던 4·3을 눈앞에서 확인시켜 주었던 다랑쉬굴”은 4·3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운동에서의 중요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는 다랑쉬굴에서 학살당했던 주민들을 호칭하는 표현들이다. “작은 마을에서 오순도순 모여 살았던 평범한 주민들”, “어떻게든 목숨을 이어가고 싶었던 사람들”, “아끼던 물건들 하나하나 들고 와 이 난리가 지나면 다시 돌아갈 그리운 집을 꿈꾸던 사람들”. 이 세 표현에서는 4·3사건에서 다랑쉬굴 같은 동굴을 찾아가 은신하는 주민들에 대한 일반적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그저 살아남고 싶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집으로 돌아가기만 열망했던 일반 사람들이었다. 4·3사건을 평화와 인권의 가치와 연결시킨 것도 이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다량취굴에서 숨었던 주민들처럼 평화롭게 살고 싶었던 일반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채정옥 할아버지이다. 영상에서 90세도 넘는 채정옥 할아버지는 다량취굴 사건에서 주요 증언자이다. 4·3사건의 진상규명에서 증언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왔을 뿐만 아니라 영상에서 증언자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사건을 더 밀접하게 보여줄 수 있다. 또한 4·3사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사건이 미친 영향은 얼마나 컸는지 증언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참혹한 시기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살아남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 영상의 목적은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 잊기만 바랐을 것이고, 여전히 잊고 싶을 것이다. 과거의 사건을 교육 자료로 기억하는 것과 실제 경험자로서 기억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다량취굴 1992년 발견에 대한 이야기이다. 공식적인 교육 자료 중에는 발견 당시 상황을 솔직하게 말해주는 자료가 많지 않다. 1992년은 멀지 않은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다량취굴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자 다시 전 44년처럼 침묵속으로 빠져들었다. 4·3사건은 금기의 언어였을 뿐만 아니라 다량취굴을 다시 봉쇄함으로써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는 경고였을지도 모른다는 말처럼 솔직한 설명이 교육 자료에 그동안 없었다. 동굴 안으로 다시 한 번 들어갈 수도 있었고 그에 대한 진실을 교육 영상에서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교육청의 진실을 밝히려고 그를 바탕으로 교육하는 방향을 보여준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4·3평화·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2016년도 4·3 평화·인권교육 운영 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¹³⁰⁾ 교육청의 목적은 4·3사건에 대한 기초이해, 평화·인권·생명 인식, 화해·상생의 정신을 형성하려는 것이다. 이것을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만 가지고 평화·인권 가치교육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다량취굴은 교육청의 영상 교육자료에서 주요 역할을 가지는 것은 사건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계획의 주간 운영에는 유적지 현장체험학습도 있다. 그래서 4·3사건 관련 유적의 순례길이 중요하다.

이 영상자료는 다량취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의의가 있지만 한 가지 결

130) http://www.jje.go.kr/board/list.jje?boardId=BBS_0000259&menuCd=DOM_000000204012000000&contentsSid=1131

점이 있다. 1992년의 발견 상황을 솔직하게 다루지만 구체적으로 그의 진실을 아직도 드러내지 못한다. 다랑쉬굴은 4·3사건의 상징이지만 1992년의 억압에 대해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억압이 있었다는 사실만 말하면서 억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억압의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많이 발전한 것이지만 실제로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 영상을 4·3평화·인권 교육에서의 활용으로 일반 학생들이나 주민들에게 보여준다면 1992년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줄 것일까.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15분의 짧은 영상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영상에서 사건을 이렇게 솔직하게 다룬다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던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설명의 필요성이 있다.

2) 큰넓개의 출현

은신처 동굴이 상징과 활용의 두 번째 단계로 2012년의 <지슬> 영화가 나타났다. 다랑쉬굴로 인해 영상콘텐츠들이 이미 1990년대에 생겼는데 진상보고서가 출판해야 장편 극영화의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만들어진 3편의 영화 중에서 하나만 성공적으로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 첫 번째 영화는 김경률 감독의 2005년에 개봉된 <끝나지 않은 세월>이었는데 그와 2010년의 두 번째 영화인 <꽃비>도 기다렸던 영향을 달성 할 수 없었다.¹³¹⁾ 4·3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일으킬 수 있었던 3번째 영화는 2012년에 제작되고 2013년에 널리 개봉된 오명 감독의 <지슬>이었다.

<지슬> 영화는 오명 감독의 예술적인 흑백 극영화이다. 아프고 어두운 역사를 보여주면서도 아름다운 영화라고 할 수 있다. 영화에서 4·3사건인 주제와 제주도 환경의 예술적 묘사방법이 대비된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초토화작전 시기 동광리 주민들의 피신생활과 토벌하는 군인들의 상황을 소개하는 영화이다.

영화에서는 동굴이 주민들의 관점에서 4·3사건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주민들이 영화에서도 평범한 일반인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동굴의 상징이 달라지면서 주민들의 모습과 정신도 변한다. 동굴에서의 장면들을 주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처음 동굴로 들어갔을 때의 모습이다. 숲에서 숨어 있는 남자들 중

131) 김종철, 「제주4·3사건 트라우마에 대한 문화적 기억과 영상적 재현」,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문화연구 문화이론, 2014.

한명이 산 쪽으로 숨기 좋은 동굴이 있다고 하는 동굴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 나온다. 동굴을 찾아갔을 때는 위치를 찾지 못하여 해매는 가족과 이웃 주민들의 모습에서도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결국 동굴로 들어가 서로 고생했다고 말하는 것에서 공동체 인식과 서로 의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첫 번째 동굴 장면에서는 주민들이 큰 일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 때는 잠시 숨어 있을 뿐이라고 말하면서 사건을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내일 모레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처럼 사태가 빨리 끝날 줄 알았다. 동굴 안에서는 불이 켜 있어 상대적 밝은 공간에서는 사람들이 떠들고 있어 집 같은 분위기 이었다. 돼지 먹이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이웃들끼리 암컷과 수컷 돼지를 교미하는 생각까지 하여 사건이 없는 상태의 평범한 사람들처럼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같이 감자를 먹는 장면이 있다. 이 영화에서 감자는 유일하게 동굴에서 먹는 음식으로 나타난다. 제목은 피신자들이 동굴에서 먹는 감자의 제주어, 지슬로 지어졌기에 영화가 피신생활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은신처 동굴에서 장난치기까지 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큰넓케에서 장난치기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영화에서 평범함을 드러내는 중요한 상징이다.

그러나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동굴의 이미지가 변해진다. 동굴은 첫 장면보다 어둡고 공포감이 가득 차 있는 공간으로 상징된다. 동굴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또한 주인공들이 아는 사람이나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 피신자들의 희망이 점차 없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사건의 가혹한 성격을 직접 경험하는 주민들의 정신을 동굴의 공간을 상징하는 데에서도 찾을 수 있다. 끝없는 어둠 속에 모여 있는 주민들은 축고 긴장된 분위기에서 걱정을 많이 하면서 싸우기까지 하는 모습이 일반적이다. 동굴이 답답해서 기침을 그만 할 수 없는 아이는 이 장면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또한 동굴 사람들이 이제 미래를 생각할 때는 집 생각이 아니고 동굴에서 또 다른 데로 어떻게 피신할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는 소개하였듯 동굴이 발견되어 불을 피워 군인들을 물러내는 사건이 있었다. 주민들은 동굴에서 피신할 수 있었지만 영화에서 임신된 아내를 두고 갈 수밖에 없었던 남자, 이 한 가족의 비극이 나타난다. 입구가 좁아 아내가 나

갈 수 없어 남편은 다른 아이를 생각해야 되어 나가버렸다. 영화의 이 한 가족은 제주도에서 서로 떨어지고 가족들을 잃어버린 수많은 가족을 상징하고 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동굴 안에 죽은 그 아내 옆에 울고 있는 갓난아이가 있어 죽음과 삶의 대비는 동굴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영화처럼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다큐멘터리들도 피신생활과 4·3사건의 진상을 잘 나타내지만 그 중에서도 영화 <지슬>은 가장 강한 상징들을 보유하고 있다. 일반 사람들의 평범한 삶과 가혹한 사건이 부딪히면서 동굴은 주요 공간이었기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현재 4·3사건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상징으로서 동굴의 역할이 중요하여 <지슬>은 이것을 활용하였다. 다랑쉬굴은 1990년대에 은신처 동굴과 4·3사건을 널리 알려졌지만 2010년대에 다시 알리는 도구로 영화 <지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은신처 동굴과 4·3사건 당시 주민들의 피신생활에 대한 기억을 유지하는 새로운 표현방법이 항상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억을 유지하려면 새롭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18> 영화 <지슬>의 동굴 장면¹³²⁾



큰넓케처럼 상징이 되지 않았지만 <지슬> 때문에 선흘리의 은신 공간도 활용하게 되었다. 3장에서 언급하였던 도톨굴, 못기물굴과 대섭이굴이 위치하고 있는 동백동산이 영화의 촬영지로 사용하였다. 현재에 동백동산의 자연적인 가치가 주로 강조되고 있지만 그의 일부로 4·3사건 동굴 유적도 있다. 또한 선흘1리에서 4·3 성터와 동굴들을 포함하는 선흘 여행코스도 있다. 동백동산의 탐방로에서 도

132)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72925

툇굴, 목시물굴과 대섭이굴이 가깝기 때문에 동백동산 여행의 일부이다. 그러나 동굴 중에서 실제로 탐방로에서 도툇굴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반면 다른 두 동굴은 찾기 힘들다. 동굴들이 다랑쉬굴와 달리 콘크리트와 돌로 막지 않았지만 용암동굴을 보호하기 위해 쇠창살로 출입이 금지돼 있다. 동백동산의 중요성은 숲의 상태를 그대로 보전해 왔기 때문에 4·3사건 당시 은신하였던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숨고 살아야 되었는지 경험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원래 동광리의 상황을 소개하는 <지슬> 영화의 촬영지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촬영지는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나 마을 해설사의 도움 없이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렵다.

<그림 19> 도툇굴 입구



<그림 20> 동백동산의 <지슬> 촬영지



큰넓궤가 위치하고 있는 동광리에서는 4·3 역사를 기념하는 ‘제주 안덕 동광마을 4·3길’까지 만들어졌다. <지슬> 영화의 인기는 그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2015년에 제주도에서 첫 번째 4·3길을 동광리에서 마련하였고 큰넓궤의 생활상을 바탕으로 하는 <지슬> 영화의 촬영지로 표시하고 있는 것은 영화의 영향을 보여준다. 이 길을 통해 마을이 겪었던 4·3 당시의 사건들과 마을의 현장을 경험하도록 마련해 왔다.

동광리 4·3길은 역사교육으로 활용되는 순례길로서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가장 잘 마련되어 있는 순례길이다. 다른 순례길은 4·3연구소 전문가들의 도움 없이 찾아가는 것이 힘들다. 그러나 동광리의 4·3길을 전문가 없이 방문해도 문제가 없다. 4·3사건의 진실을 지역적인 사례의 현장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시설이다.

<그림 21> 제주 안덕 동광마을 4·3길 안내도



<그림 22> 큰넓궤 (4·3유적지) 표지판



4·3길 센터로 지정한 동광리복지회관에서 시작하는 길은 큰넓궤와 잃어버린 마을인 무등이왓으로 향하는 두 가지 길로 구분하여 은신처였던 큰넓궤의 중심 역할이 드러난다. 두 길을 통해 큰넓궤와 무등이왓이 강조되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사건과 관련되거나 당시 동광리의 다른 장소들이 연결돼 있다. 동광리의 잃어버린 마을들 중에서 무등이왓과 삼밭구석이 표시하고 있고, 무등이왓으로 가는 길에 최초 학살과 잠복 학살의 장소도 찾을 수 있다. 최초 학살터는 초토화가 시작한 11월 중순경에 무등이왓으로 집결시킨 주민들을 학살한 곳이다. 잠복 학살터는 3장에서 언급하였듯이 토벌대가 잠복하고 시신들을 수습하러 온 주민들을 생화장하였던 참혹한 일이 있었던 곳이다.

동광마을 4·3길에 은신처 동굴에서 큰넓궤와 도옛궤가 포함하고 있어 동광리 주민들의 동굴에서의 생활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4·3길의 일부로 동광리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모두 들어갈 수 있게 동굴들이 개방돼 있다. 두 동굴의 차이와 주요 은신처는 왜 큰넓궤였는지를 입구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다. 도옛궤의 입구는 넓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반면 큰넓궤의 좁은 입구에서부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 동굴에서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아는 현재 사람들에게도 들어가기가 공포감을 주는데 4·3 당시에 처음으로 들어갔을 때 동굴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공포감은 더 강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도옛궤와 달리 입구가 좁아 발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더 안전한 은신처로 인식되었다. 동굴이라는 곳은 다목적의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역사적인 사건들로 인해 대립되는 상징성을 가지게 되었다. 역사공간으로 일상생활의 주거지와 전쟁과 4·3사건처럼 특별한 사건들 때문에 은신처로 사용하게 되었다. 동굴은 고립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고립감에서 삶과 죽음의 대립이 나타난다. 동굴은 한편 주거지로서 외부에서 보호하는 삶의 공간이었다. 4·3사건에서 은신하게 되어 그런 삶의 공간이 더 한 번 강조하게 되었으나 동시에 죽음의 공간이 되기도 하였다. 동굴이 제주도민들이 희생당한 학살터가 되면서 원래 가지는 안전함과 더불어 위험과 공포감을 상징하게 되었다. 이런 동굴들이 가지는 공포감과 안전성의 이중성을 큰넓궤의 현장으로 가보면 직접 느끼게 될 수 있는 데에 이 동광마을 4·3 순례길의 의의가 있다. 실제로 많은 제주도 동굴들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다량쉬굴처럼 사건 때문이라는 것보다 용암동굴의 자연적 가치를 보호하는 이유로 출입

이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실제로 피신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큰넓개는 더욱 중요한 유적지이다.

<그림 23> 큰넓개 입구



<그림 24> 도옛개 입구



체험의 중요한 부분으로 큰넓개와 도옛개의 안에서도 당시 주민들이 사용하였던 유물들을 발견할 수 있다. 유물들은 그대로 남아 있어 당시 생활상을 보여주는 데에 큰 가치가 있다. 그러나 동굴들이 개방돼 있으면서 유물의 보존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결국 유물들의 파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유물의 대부분 항아리 같은 생활용품인데 동굴 바닥에서 뿌려져 있으며 특히 규모가 더 작은 도옛개에서 그들의 상당한 수량이 잘 나타난다. 유물들의 이런 수량은 동굴들에서 많은 사람이 오래 살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그렇게 많은 용품들을 가져가는 것은 특히 추운 겨울에 쉽지 않았을 것이다. 생활도구들을 모두 어떻게 동굴까지 가져갈 수 있었을까? <지슬>에서 짐을 머리나 등에 놓고 동굴까지 들고가는 주민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길고 고단한 길이었을 것이다. <지슬>, 다랑쉬굴 재현이나 <기억, 너머>에서 봤던 유물 상태보다 피신생활의 복합된 이미지가 생생하게 떠오르지 않는다 해도 직접 가볼 수 있는 것이 큰넓개의 장점이다.

<그림 25> 큰넓게 유물 사진



<그림 26> 도옛궐 유물 사진 1



<그림 27> 도옛궐 유물 사진 2



4·3사건에 대한 또 하나의 방향선으로, 사건이 공식화된 후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상징하려고 지향하는 의도가 생겼다. 4·3사건에서 교훈을 내리고 사건의 진상뿐만 아니라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후세들에게 가르침에서 그의 또 다른 의의를 찾고자 하였다. 4·3사건의 교육으로 인해 자라날 세대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마련하면서 역사와 사회인식을 발전하려고 한다. 이 노력에서 은신처 동굴과 피신생활이 중요하다. 동굴이 상징하는 피신생활은 우리와 비슷한 일반 사람들의 수난을 보여주면서 4·3사건을 새로운 관점에서 재구성할 수 있다. 사건이 일반 사람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이해해야 현재에 평화나 인권의 가치를 인식하고 교육할 수 있지 않을까? 바로 다랑쉬굴 재현과 큰넓궐 현장 같은 유적 체험, 또한 그들에 대한 영상·영화들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통해 역사교육의 필요성이 있다.

V. 결론

지금까지 제주 4·3사건에서 주민들의 동굴 피신생활과 기억의 공간으로 등장하는 동굴을 살펴보았다. 4·3사건은 아픈 기억이 될 수밖에 없다. 아픈 기억이라면 왜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할까? 경험자들의 아픈 기억은 개인적인 기억에서 변화하고 역사적인 의의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동굴은 민주화운동 전에 있었던 이념들의 싸움이라는 정의에서 벗어나고 사건에 대한 새로운 기억들을 소개하였다. 동굴은 피신생활의 공간이라 일반 사람들의 인내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 사람들도 역사의 일부이자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장에서는 사건의 배경과 전개과정을 통해 4·3사건의 전체를 이해할 수 있었다. 제주도의 특별한 위치에서 비롯한 경제적·사회적 상황과 냉전 시대의 결과로 이루어진 남북 이념 대비가 4·3사건으로 유명해진 양민학살을 초래하였다. 진상조사보고서의 정의를 살펴보면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 공식적인 정의를 보면 무장대와 토벌대의 충돌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역할도 강조된다. 이것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사건의 가장 힘든 시기 당시 생활상을 보여주려고 은신처 동굴 피신생활을 살펴보았다.

4·3사건은 길고 복잡한 역사적 사건이다. 가장 많은 민간인 희생을 일으킨 시기는 1948년 10월부터 1949년 3월까지 지속된 초토화작전의 시기였다. 주민들의 피신생활은 이 시기에 작전의 목적인 중산간 지대의 은신처 동굴들에 집중되었다. 중산간 마을 주민들의 일부는 해변마을로 이동하였으나 군인·경찰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마을 공동체로서 동굴 같은 은신처에서 숨고 피신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3장에서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던 마을은 세화리·동광리·선흘리 마을의 동굴들이었다. 이 중에서 장기적으로 사용하였던 세화리의 다량취굴과 동광리의 큰넓게에서 피신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선흘리 동굴들은 단기적인 은신처였기에 주인들의 생활상에 대해서는 크게 들어낼 수 없었다. 동굴로 피신한 이유는

동광리와 선흘리의 경우, 중산간 지대를 향하는 토벌대의 초토화작전 때문이었다. 이와 다르게 다랑쉬굴의 경우는 종달리와 하도리가 반복된 습격을 당하여 두 마을 주민들이 세화리로 은신하였다. 세 마을 모두 그 당시 무장대 활동에 개입되어 있지 않은 주민들이라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었다. 특히 가족이나 친척 중에 실제로 무장대 활동을 하거나 활동을 하였다고 추정됐을 때도 당국의 주목을 받아 고문이나 학살까지 당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군인·경찰을 무서워하였고, 제주도농공공동체성이 강한 섬이기에 주민들이 다 같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동굴로 숨었던 것이다.

다랑쉬굴에서는 종달리·하도리 주민 20여 명이 한 달 정도 살았고, 큰넓케에서 동광리 주민 120여 명이 두 달 정도 살았다. 이 두 동굴의 경우, 동굴의 공간을 비슷하게 구분하고 있었다. 동굴 안이나 밖에서 밥을 해먹고, 동굴을 마치 집처럼 살았다는 생활상이 그려진다. 선흘리의 경우에 며칠 동안 마을의 4개 동굴이 은신처로 쓰게 됐는데, 그 중에서 도톨굴에서 망보는 청년들, 목시물굴에서 노약자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주민들, 뽕뽕뽕굴에서 선흘2리 주민들이 구분하여 숨었다. 이 동굴들이 은신처라서 찾기가 힘든 지역에 좁은 입구가 있는 반면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상대적으로 큰 공간들이었다.

3개 마을의 동굴들이 모두 토벌대에게 발각되어 많은 주민들이 희생을 당하였다. 실제로 은신처 동굴들이 주목받았던 것은 은신한 주민들이 학살당하였기 때문이었다. 한 이유는 학살당한 주민들의 억울한 죽음 때문에 형성된, 동양 문화의 특징인 원한을 풀어야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다. 동굴뿐만 아니라 사건의 모든 희생자가 가지는 원한과, 그것을 풀 수 없는 것과 관련하여 장례식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였던 한국 사람들의 유감을 증언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

4장에서는 동굴은 기억의 공간으로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은신처 동굴들은 처음에 4·3진상규명운동 과정에서 역사적 상징이 되었고, 주민들의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 활용되었다. 또한 4·3동굴은 역사적 유적지로서 활용되고, 다큐멘터리와 극영화를 통해서도 전국, 또는 국제적 영역까지 퍼지게 하는 데 활용되었다. 여기에서 다랑쉬굴과 큰넓케의 주역이 탁월하였다. 민주화운동에서 다랑쉬굴의 1992년 발견이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다랑쉬굴 사건으로 인

해 동굴이 처음으로 기억의 공간이 되었다. 이것을 이어가는 영상콘텐츠들이 등장하였다. 다랑쉬굴에 대한 영상콘텐츠는 1990년대부터 만들어졌는데 현재 교육청의 영상 자료에서도 주요 상징으로 나타난다. <기억, 너머>에서 나타나는 다랑쉬굴은 “그저 기념관 속에 전시된 유물과 숫자”뿐만 아니라 생생한 4·3사건을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공간이다. 이와 더불어 2013년의 <지슬> 영화는 그전까지의 해석과 비슷하면서도 예술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해석을 내렸다. <지슬>은 극영화이기 때문에 동굴이 마련해주는 4·3기억을 널리 알리는 수단으로 등장하였다.

동굴의 삶을 살았던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서 볼 때 구술사에서 말하는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인식할 수 있다. 4·3사건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역사교육, 또한 현재 많이 강조되는 평화와 인권의 교육을 더 효율적으로 형성시킬 수 있다. 이것은 국가의 차원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세계화의 시대에서 한 나라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실제로 제주도에서만 은신처 동굴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아시아에서 오키나와의 치비치리가마라는 동굴의 비극¹³³⁾, 유럽에서 다큐멘터리로 유명해진 제2차 세계대전 때 우크라이나의 동굴들에서 숨었던 유대인들의 사례를¹³⁴⁾ 언급할 수 있다. 헝가리의 경우에도 제2차 세계대전과 1956년의 혁명 당시 부다페스트에 있는 동굴들을 몸을 숨기게 사용하였던 게 확실하다. 그들의 사례에서 개별적 사건뿐만 아니라 시기적 특징들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동굴에서 은신해야 하였던 사실에서 20세기의 전쟁과 냉전 시대가 일으킨 특별한 상황을 알 수 있는데 그의 가치가 있다. 그런 사례들을 비교하면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런 공간들을 역사적 유적지로 삼고 보존하면서 역사인식을 형성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논문의 대상처럼 다른 나라 동굴 피신생활로 인해 그런 가혹한 사건들에서 일반 사람들이 강조하게 되어 역사를 더 가까이하면

133) 1945년 전쟁 말기에 오키나와로 미군이 들어오자 일본군과 충돌하게 되어 오키나와 주민들이 많이 희생되었다. 치비치리가마라는 동굴로 100명 넘게 피신한 주민들이 미군에게 발견하자 일본군의 교육으로 82명이 집단자살을 행한 비극이 있었다. (유장근, 『현대의 오키나와와 경남 지역에서 민간인 전쟁희생자를 기억하는 세 가지 방식 ~찌비찌리 동굴, 히메유리탑, 그리고 여양리 유골』 사총 Vol.81, 2014.)

134) 제2차 세계대전에 우크라이나에서도 나치들로부터의 유대인들의 추적이 이루어졌다. 1942~1944년 사이에 나치들을 피하려고 유대인 가족들이 동굴로 피신하였는데 그에 대해 2012년에 <No Place on Earth>이라는 다큐드라마가 개봉되었다.

서 미래의 비슷한 사건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헝가리사람으로서 4·3사건을 헝가리의 사건과 비교하게 될 수밖에 없다. 1956년 10월 23일부터 시작하는 ‘헝가리 혁명’은 사건의 성격에서 4·3사건과 비슷하였다고 할 수 있다. 냉전 시대 소련 아래 사회주의 국가가 된 헝가리에서 민주화·자유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시위에서 무장 봉기가 발생하였고, 당국과 소련군의 억압으로 많은 주민이 희생되었다. 사건 후에 ‘반혁명’이라 여겨지며 오랫동안 진실의 금기시대가 있었다. 결국 한국의 민주화운동처럼 1980년대의 민주화 과정에서 그의 진상이 들어낼 수 있었다. 4·3사건 피신생활 연구의 사례를 바탕으로 헝가리 혁명도 일반 주민들의 생활상을 바라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헝가리와 한국 같은 서로 문화가 다른 두 나라의 역사적 사건에서 유사점을 발견하는 게 세계화 시대의 중요한 일이다. 세계화는 경제·정치·무역 등의 분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주민들을 자기나라 주민들처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도 나타나야 된다. 이 논문은 두 나라의 사건들을 비교할 연구의 바탕이 되고 비교 연구는 다음 연구과제로 삼겠다.

참고문헌

단행본:

- 김동만, 『다큐 제주 = Documentery Jeju』, 각, 2008.
- 김범훈, 『제주도 용암동굴 들여다보기』, 각, 2009.
- 손인석, 『제주도의 천연동굴: 동굴탐험·조사·연구 30년 (1975~2005.8)』, 나우 2005.
- 양조훈, 『4·3 그 진실을 찾아서』, 선인, 2015.
- 오승국, 『4·3평화기념관 및 유적지 탐사』, 『4·3역사문화 교육프로그램』 제주4·3 연구소, 2010.
- 유택림 · 함한희, 『새로운 역사쓰기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아르케, 2006.
- 제민일보 4·3 취재반, 『4·3은 말한다』 1~5권, 전예원, 1994~1998.
(<http://www.jeju43.go.kr/>)
- 제주4·3제50주년 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학민사, 1998.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 제주4·3연구소, 『이제사 말함수다』 1,2권 한울, 1989.
- 제주4·3연구소, 『무덤에서 살아나온 4·3 '수형자'들』, 역사비평사, 2002.
- 제주4·3연구소, 『평화와 인권의 성지, 제주도』 제주도, 2006.
- 제주4·3연구소, 『갈치가 갈치 풀랭이 끊어 먹었다 할 수밖에』, 제주4·3 구술자료총서 01, 한울, 2010.
- 제주4·3연구소, 『산에서도 무섭고 아래서도 무섭고 그냥 살려고만』 제주4·3 구술자료 총서03, 한울, 2011.
- 제주4·3연구소, 『지금까지 살아진 것이 용헌거라』 제주4·3 구술자료 총서04, 한울, 2011.

제주4·3연구소, 『빌레못굴, 그 끝없는 어둠 속에서』 제주4·3구술자료총서 06, 한울, 2013.

제주4·3평화재단·제주4·3연구소, 『4·3길을 걷다 : 제주4·3유적 143선』 제주4·3평화재단, 2011.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제주 4·3연구의 새로운 모색』, 제주대학교출판부, 2013.

제주도 편, 『제주도 천연동굴내 문화유적 기초조사 보고서』, 제주도, 2000.

제주도·제주4·3연구소, 『제주4·3유적 I~II.』 각, 2004.

제주도·제주4·3연구소, 『제주4·3유적 종합정비 및 유해발굴 기본 계획』, 2005.

제주특별자치도,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일신옵셋인쇄사, 2009.

제주민예총4·3문화예술제사업단, 『다랑쉬굴의 슬픈 노래』, 각, 2002.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역사문화진흥원, 『일제 동굴진지 등록문화재 종합 학술조사 보고서 I.』 제주역사문화진흥원, 2008.

허영선, 『제주 4·3을 묻는 너에게』, 서해문집, 2014.

논문:

고성만, 「제주 4·3담론의 형성과 정치적 작용」, 『4·3과 역사』, 제5호, 2005.

권귀숙, 「4·3의 대항기억과 영상」, 『제주도연구』 Vol.24, 2003.

권귀숙, 「4·3의 기억과 젠더 이미지: 4·3 영상 다큐멘터리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Vol.43 No.2, 2004.

김동진, 「제주 4·3 역사자료의 수집 현황과 과제」, 『제주4·3 연구의 새로운 모색』,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2013.

김범훈, 「제주도 용암동굴의 보존 및 관리 방안」,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김석운·김태일, 「제주4·3 Dark Tourism 방문객 의식에 관한 연구」, 『제주도연구』, Vol.37, 2012.

김지수, 「4·3과 중산간 마을의 거주공간 변모-남제주군 안덕명 동광리 무등이왓을 사례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김용철, 『제주4·3사건 초기 경비대와 무장대 협상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김은희, 『제주 4·3시기 '전략촌'의 형성과 주민생활』, 『역사민속학』 제23호, 2006.

김종철, 『제주4·3사건 트라우마에 대한 문화적 기억과 영상적 재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김태일, 『1945년~1955년의 제주지역 4·3사건 관련 유적 분포 및 주거건축물의 특징 연구』, 『제주도연구』 Vol.34, 2010

박찬식, 『4·3증언 프레임과 제주민의 자치인식』, 『탐라문화』 Vol.28, 2006.

양정심, 『제주4·3항쟁의 기억투쟁』, 『史林』 Vol.25, 2006.

유장근, 『현대의 오키나와와 경남 지역에서 민간인 전쟁희생자를 기억하는 세 가지 방식 ~찌비찌리 동굴, 히메유리탑, 그리고 여양리 유골』, 『사충』 Vol.81, 2014.

이인화, 『동굴의 민속학적 접근』, 『동굴』 Vol.63, 2004.

이정애·이영애, 『동굴과 문화의 상관성에 관한 고찰』, 『동굴』 Vol.47, 1996.

제주4·3연구소, 『제주4·3유적 종합 기본 계획 (안)』, 2005.

제주4·3연구소, 『4·3유적지 현장답사 자료집』, 2008.

학회, 『제주 4·3연구소가 걸어 온 길』, 『4·3와 역사』 Vol.1, 2001.

함옥금, 『'제주4·3'의 초토화작전과 대량학살에 관한 연구-미국의 역할과 책임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허영선, 『제주 4·3시기 아동학살 연구: 생존자들의 구술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현혜경, 『제주4·3사건 기념의례의 형성과 구조』,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인터넷 자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67118&cid=46625&categoryId=4662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30/0200000000AKR20151030114800056.H>

TML

<http://www.ramsar.org/>

<http://www.jeju43.go.kr>

<http://www.jje.go.kr>

http://news.nationalgeographic.com/news/2004/05/0527_040527_grottosurvivors.html

<http://www.noplaceonearthfilm.com/>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72925

<부 록>

제주4·3사건 일지

년도	일자	내용
1947	3.1	제28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응원경찰의 발포로 관덕정과 도립병원 앞에서 주민 6명 사망, 8명 중경상을 당하는 '3·1사건' 발생
	3.10	제주도청을 시작으로 3·1사건에 항의하는 민·관 총파업 돌입. 13일까지 제주도 전체 직장의 95%인 166개 기관·단체에서 파업에 가세
	6.6	구좌면 중달리에서 민청 집회를 단속하던 경찰관 3명이 마을 청년들로부터 집단폭행 당한 '6·6사건' 발생
	8.8	안덕면 동광리에서 보리수매 독려차 마을을 방문하였던 관리들이 마을 청년들로부터 집단폭행 당함
	11.2	서북청년회 제주도본부 발족
1948	2.1	좌파세력 남한 단독선거에 반대해 전국적 총파업으로 몰고 간 '2·7투쟁' 전개
	3.15	남로당 제주도상위에서 첫째 조직의 수호와 방어의 수단으로써, 둘째 단선·단정 반대 '구국투쟁'으로써 무장투쟁 결행 최종 결정
	4·3	제주도에서 무장봉기 발발. 350여 명의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새벽 2시를 기해 제주도내 12개 지서를 공격하고 우익단체 요인의 집을 습격
	4.5	미군정, 약 100명의 전남경찰을 응원대로 급파하고 제주경찰감찰청 내에 제주비상경비사령부 설치
	4.28	제9연대장 김익렬과 무장대 총책 김달삼 평화협상 진행
	5.1	'오라리 방화사건' 발생해 평화협상 파기
	5.3	미군 수뇌부, 경비대사령부에게 "무장대를 총격하여 제주사건을 단시일 내에 해결하라"고 명령
	5.10	5·10선거 실시. 제주도 62.8%로 가장 낮은 투표율 기록. 북제주군 2개 선거구는 과반수 미달로 선거무효된
	8.11	제주도 민보단 창설
	8.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공포
	8.29	응원경관대 800명 제주도에 도착
	10.11	제주도경비사령부 설치
	10.17	제9연대장, 제주 해안에서 5km이상 지역에 통행금지를 명령하면서 이를 어길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총살에 처하겠다는 내용의 포고문 발표

	10.18	제주해안 봉쇄
	10.19	여수 14연대 반란사건 발생
	11.13	토벌대, 애월면 하가리에서 가옥에 방화하고 남녀노소 25명을 집단총살한 뒤 소길리 원동 마을에서 주민 50~60명을 집단총살하는 등 이 날을 기점으로 약 4개월간 중산간 마을을 초토화하고 주민들을 집단총살
	11.17	이승만 대통령, 대통령령 제31호로 제주도 계엄령 선포
	12.1	국가보안법 공포
	12.13	서북청년회 단원 620명이 정식 경찰로 임용
	12.15	제9연대를 제5여단에서 해편하고 제2여단에 편입
	12.18	다량쉬굴 발견
	12.29	2연대, 9연대와 교체해 제주에 주둔
	12.31	제주도지구 계엄령 해제
1949	1.17	‘북촌사건’ 발생. 토벌대, 마을 인근에서 군인들이 기습받는데 대한 보복으로 조천면 북촌리를 모두 불태우고 이튿날까지 주민 400명 가량을 집단총살
	1.18	제3경찰서(모슬포)와 제4경찰서(성산포) 설치
	1.22	토벌대, 안덕면 동광리·사창리 주민 등 80명을 서귀포 정방폭포 부근에서 집단총살
	2.19	경찰특별부대 505명 제주에 파견
	3.2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 설치
	5.10	국회의원 재선거 설치
	5.15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 해산. 서북청년회 단원으로 구성된 2연대 3대대 철수
	6.7	무장대 총사령 이덕구, 경찰에 의해 사살
	8.20	독립 제1대대 수원에서 제주도로 이동
	12.28	해병대 제주에 도착
1950	6.25	6·26전쟁 발발
	7.8	계엄법 제1호에 의하여 전남, 전북을 제외한 남한 지역에 계엄을 선포
	8.20	모슬포경찰서 관내 한림면·대정면·안덕면 예비검속자 344명 중 252명이 군에 송치돼 송악산 첫알오름에서 집단총살됨.
	10.10	제주도지구 계엄 해제
1951	5.20	제주도에 온 피난민수 148,794명으로 집계

1954	1.15	잔여무장대는 6명뿐이라고 발표
	9.21	한라산 금족구역 해제

2016년 4·3 관련 행사¹³⁵⁾

일 정	시간	행 사 명	장 소	주 관
3.23(수)~ 4. 8(금)	09:00~ 18:00	제68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기념 사진전 개최	도청 본관 1층 로비	제주특별자치도
3.25(금)~ 5.31(화)	09:00~ 18:00	제68주년 4.3 초대전 "평화 슬픔에 민 평화의 꽃"	4.3평화기념관 기획전시실(2층)	제주4.3평화재단
3.25(금)~ 4.20(화)	09:00~ 18:00	4.3만화 "지슬"원화 전시회	5.18기념센터	5.18기념재단,4.3희생자유 족회,노무현재단,제주,광주위 원회
3.25(금)~ (연중)	09:00~ 18:00	4.3 소원지 특별전 "사람의 소원"	4.3평화기념관 기획전시실(2층)	제주4.3평화재단
3.26(토)	09:00~ 15:00	제주지역대학생 4.3바로알리기 행사 "제주4.3 그날의 기억"	시청~관덕정	제주대학교총학생회
3.26(토)	15:00	4.3 그림책「나무도장」 출간 기념 현정식	4.3평화기념관	평화를 품은책
3.27(일)	10:30	제주4.3사건 희생자를 위한 특별천도제	4.3위령제단	원불교 제주교구
3.30(수)	11:00	제4회 제주4.3평화문학상 시상식	제주도청 한라홀	주최:제주특별자치도 주관:제주4.3평화재단
3.30(수)	15:00	4.3증언본풀이 "학살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死.살을 말한다"	문예회관소극장	(사)제주4.3연구소
4. 1(금)~ 6.30(목)	09:00~ 18:00	제주4.3 68주기 추념시화전	4.3평화공원 문주	제주작가회의
4. 1(금)	10:00	4.3해원방사탑제	신산공원내 방사탑	4.3도민연대
4. 1(금)	13:00	제12회 4.3청소년이야기 마당	4.3평화기념관 대강당	4.3도민연대
4. 1(금)	17:30~	4.3항쟁 제68주년기념 "국콘서트" "4.3과 미국"(허상수 지음)	서울시민청 B2 콘서트홀	제주사회문제협의회
4. 1(금)	09:00~ 16:00	제주대학생4.3유적지 순례 및 표석뒹기 봉사활동	4.3유적지 제주4.3평화공원	제주대학교총학생회
4. 2(금)~ 3(일)	09:00~ 18:00	서울-부산도민회 문향소 운영 (제주68주년 4.3희생자추념식 서울-부산문향소 운영)	서울 및 부산 도민회 사무실	제주4.3평화재단
4. 2(토)	10:00~	도련1동 4.3희생자 위령제	도련1동 위령제단	도련동유족회
4. 2(토)	11:00~	동회천 4.3희생자 위령제	동회천 위령제단	동회천 유족회

135)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75628>

4. 2(토)	16:00	4.3항쟁 제68주년 기념강연 김종민(전 4.3위원회 전문위원)	서울마포구 기뿔리청년회관	재경제주4.3희생자및피해 자유족회, 육지사는제주사들
4. 2(토)	19:00~	제68주년 4.3희생자추념일 전야제 "평화의 올림, 빛이 되소서"	제주아트센터	제주4.3평화재단
4. 2(월)~ 4. 3(토)	14:00~ 19:00	제23회 4.3은화예술축전(4.2~4.24.) 4.3 거리예술제	제주시청 앞마당	제주민예총4.3사업단
4. 2(토)	18:00~ 20:00	4.3평화음악회 "잠들지 않는 남도"	제주시청 앞마당	제주민예총4.3사업단
4. 2(토)~ 24(일)	개막 4.2(토) 15:00	4.3미술제 "새드림-세계의 공감"	제주도립미술관상설갤 러리	4.3미술제조직위원회
4. 2(토)~ 8(금)	09:00~	4.3사진전 "잃어버린마을, 남은 자들"	연갤러리	(사)탐라사진가협회
4. 3(일)	07:30~	제주4.3희생자유족회 식전제례	4.3위령제단	4.3유족회
4. 3(일)	10:00	제68주년 4.3희생자추념식	제주4.3평화공원	주최-행정자치부 주관-제주특별자치도
4. 3(일)	17:00~ 19:00	역사맛이거리굿	제주시청 앞마당	제주민예총4.3사업단
4. 6(수)	10:00~	상기리 위령제	상기리 위령제단	상기리
4. 9(토)	10:00~ 15:00	찾아가는 현장위령제 "노형 해원상생굿"	노형동 주민센터앞	제주민예총4.3사업단
4.16(토)	09:00~	"4.3길 걸기" 제주도민과 함께 하는 4.3역사기행	인덕면 동광리 일대	(사)제주4.3연구소
4.20(수) (예정)	10:00~ 15:00	청소년 4.3역사문화마당	노형초등학교	제주민예총4.3사업단
4.23(토)	18:00	제주도4.3사건 68주년 기념 대담과 노래의 밤	일본 도쿄 니보리씨니출	제주4.3사건을 생각하는 모임 도쿄
4.24(일)	14:00	제주4.3사건 68주년 재일본4.3사건희생자위령제	오사카시립히가시나리 주민센터 6층	재일본제주4.3사건희생자유족 회,제주4.3사건을 생각하는모임 오사카
4.24(일)	11:00	하원마을 4.3위령제	하원동4.3위령제단	하원동유족회
5. 3(화)~ 5.20(금)	09:00~ 18:00	4.3간화 "지슬"원화 전시회	밀양시립박물관	4.3유족회,노무현재단,제주,경 남유족회